

2020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 자료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2020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 자료집

십자가(十字架)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尖塔)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자료집을 발간하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2016.9월)는 사순절 넷째 주일을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20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20년 올해는 4년째를 맞이하는 순교자기념 주일입니다. 이번 제104회 총회는 3월 22일로, 제주 4.3 기념 주일 한 주 전입니다.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일자와 제정 배경”, “초대교회의 순교자 정의와 순교신앙에 관한 기초자료”(나현기 목사)와 “중보기도”, 설교문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피의 제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교회”(강석찬 목사), “한국교회 순교신학 정립을 위한 시론”(최상도 목사), “순교자의 교회”(몰트만) - 총회 특별강연 1984 - 등은 기존 자료입니다.

올해는 김재준 목사의 주후 258년에 순교한 “羅馬(나마)의 監督(감독) 식스티스와 執事(집사) 라우렌스”에 관한 오래된 원고를 찾아 소개합니다. 한문으로 된 것을 장공기념사업회가 읽기를 위해 음을 넣어드립니다. 김유준 목사(은진교회)의 “기독교 박해의 원인과 경과”와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생애”와 “로마제국의 박해와 초대교회의 순교신앙”을 함께 안내합니다.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값진 헌신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피 값을 치른 적색 순교라면, 삶으로 순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백색 순교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순교적 각오로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해 귀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2일

총회 총무 이재천

목차

1. 발간사 _총회 총무 이재천 목사	5
2.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일자와 제정 배경	9
3.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중보기도 _목회지원부	11
4. 초대교회의 순교자 정의와 순교신앙에 관한 기초자료 _나현기 목사	13
5. 기독교 박해의 원인과 경과 _김유준 목사	19
6. 로마제국의 박해와 초대교회의 순교신앙 _김유준 목사	27
7. 나마의 감독 식스티스와 집사 라우렌스 _김재준 목사	45
8.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생애 _김유준 목사	49
9. [설교]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교회 _강석찬 목사	55
10. 한국교회 순교신학 정립을 위한 시론 _최상도 목사	63
11. 순교자의 교회 _몰트만 교수	73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일자와 제정 배경

1.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일자

- 매년 사순절 넷째 주일

2.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제정 연구 배경

- 제100회 총회는 군산노회가 현의한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제정 현의의 건”을, 역사위원회로 넘겨 1년간 연구하였습니다. 총회 역사위원회는 연구를 진행하고, 제101회 총회에 현의하고 결의하였습니다.

3.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제정 연구 결과

- 1)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76년 인도 방갈로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순교자들이 전해준 유산은 소중하며, 그들은 “모든 기독교인의 공동자산”임을 천명하였습니다(WCC 1978:200).
- 2) 2세기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피는 기독교 공동체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와 희생을 통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순교자들의 희생과 삶을 기리고 기념하는 일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기도 합니다.
- 3)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증거 하다가 박해받아 희생을 당한 이들을 순교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 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순교자를 기념해왔습니다.
- 4) 그 전통을 이어 우리 교단에서도 순교자기념 주일을 제정하고, 그 정신을 기리며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다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을 당하며 비판을 받는 때에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 5) 순교자기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기간인 사순절 넷째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의연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교자기념 주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2020. 3. 12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육순종 목사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 중보기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의 진리를 쫓다가 순교한 이들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총회 순교자기념 주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이 수용된 후 3.1운동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범주를 넘어 민족의 아픔까지 안았습니다.

순교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보전되며,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확장되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진리를 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순교자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은총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참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생명의 열매를 맺듯

우리 또한 복음의 씨앗으로 주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순교자 정의와 순교신앙에 관한 기초자료

나현기 목사(한신대학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는 순교자기념 주일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기념하기로 하였다. 일찍이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78년 인도 방갈로에서 순교자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자산”임을 천명하였다.¹⁾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을 발견하는 행위로써 기독교의 고유하고 유의미한 전통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순교자들과 순교신앙의 뿌리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다. 초대교회(사도 교부시대-아우구스티누스) 순교역사는 크게 ‘붉은 순교’(red martyrdom)와 ‘백색 순교’(white martyrdom)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사도행전 7장 54절~60절의 증언에 따르면 스테반 집사가 당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고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

이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시작으로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313년)으로 박해가 종식될 때까지 로마 황제와 관료들의 박해로 인해 수많은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거나 고문당하였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원인은 다양한 배경과 이유로 단순하게 설명할 순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많은 기독교인이 고문당하거나 처형되었다. 에른스트 다스만(Ernst Dassmann)의 주장에 따르면 초대교회 시기 어림잡아 6000~7000여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한다.²⁾ 이렇게 신앙을 이유로 물리적으로 육체적 폭력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을 역사가들은 ‘붉은 순교’(red martyrdom)라 부른다.

이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선교의 자유를 얻은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1) WCC 1978 : 200.

2) 에른스트 다스만, 장인산 역, “순교와 교회: 초대교회 순교자 공경의 의미와 기원,” 신학전망 (2009.6), 123.

속도로 성장한다. 종교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은 밀라노 칙령 이후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제국 인구의 50% 이상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주장한다.³⁾ 이러한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을 모든 이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의 개인과 그룹들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밀려들어 오는 이름뿐인 ‘개종자’들을 지켜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그들로 인해 예루살렘 초기 전통과 신앙적 순수성이 상실되어 간다고 생각했다.⁴⁾

그들은 주저 없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마을 공동체를 떠나 주변 외곽이나 외딴곳으로 물러났다. 그리고 독거(獨居), 반독거(半獨居), 혹은 공주(共住) 생활을 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광야 생활 등을 모델로 삼고 철저한 금욕생활을 유지했다. 그들의 목표는 ‘붉은 순교’ 전통이 사라진 시기에 엄격한 말씀 읽기, 암송, 침 없는 기도, 철야와 금식, 자급자족의 생활과 자선을 통해서 내적 유혹들을 극복하며 ‘마음의 청결’(puritas cordis)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마음의 청결’이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는 말씀을 신뢰하고 수도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내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유혹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성서 속에 계시된 예수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만이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았던 (imitatio Christi) 선배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따르는 것이라 여겼다. 금욕적 생활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온전히 이 땅에 실현하려는 수도적 개혁운동가들을 ‘백색 순교자들’이라 부른다.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기원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우스의 생애』(Vita Antonii)가 초대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 안토니우스의 수도 생활과 수도신학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 수도사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이른바 순교자들을 뒤이어 초대교회의 신앙적 영웅과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이러한 순교 혹은 순교자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순

3)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6-7.

4) 이러한 태도는 3-6세기 사막교부 문헌들 속에 자주 나타난다. 요한 카시아누스, 『담화집』 (서울: 은성출판사, 2013), 18.5.2-3;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1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2010), 157-172.

교자(martyr)와 순교(martyrdom)의 어원은 헬라어 마르투스(μάρτυς)에서 왔다.⁵⁾ 그 의미는 ‘증인 혹은 목격자’이다. 누가복음 24장 48절과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던 증인들(목격자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증인을 의미하는 마르투스를 “피의 증인”(blood martyr)이란 의미로 해석한다. 즉 ‘자신의 신앙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대교회 문헌 중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 『폴리캅의 순교사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는 요한계시록의 ‘증인’ 개념을 따르면서도 순교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특별히 『이그나티우스가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은 자신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순교를 향한 여정을 “참 기독교인임을 증명하는 길”(3.1)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참 제자가 되는 길”(4.2)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 고난의 모방자가 되는 것이다(6.1-3).

다시 말해서 이그나티우스가 이해하는 기독교 순교자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 고난을 겪고 처형당하는 이들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모방자”가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야수들의 먹이”가 되는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빵”이 되는 순간이라고 확신하다(4.1). 예배의 성찬을 통해서 기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가장 완벽한 증인이요,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이러한 ‘순교 신앙’은 이후 초대교회의 순교 이해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그나티우스의 로마 서신을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초대교회의 순교신앙 혹은 순교신학을 정리해보자.⁷⁾ 이그나티우스를 교회역사가들은 사도 교부(Apostolic Fathers, 대략 70년경~140년경)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따르던 열두 제자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들을 이어 활동했던 지도자

5) Everett Ferguson ed., *Encyclopedia of Early Christianity*, Second e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9), 724-728.

6) 이그나티우스의 서신과 폴리캅의 순교사화는 다음 번역서에서 볼 수 있다. J.B. 라이트푸트, J.R. 하머, 이은선 역, 『속사도교부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09-164, 181-198.

7) 아래 이그나티우스에 관한 글은 2016년 새가정에 발표했던 글을 일부 요약 편집한 것이다.

들이라는 말이다. 그 시대에 복음이 상당히 깊숙이 전파되었던 동로마 지역과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시 인근에서 적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이 활동했을 터이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사도 교부들의 글은 많지 않다.⁸⁾

사도 교부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로마사회에서 소수자들이었다. 그들이 섬기던 교회들은 안과 밖에서 도전을 받았다. 안으로부터 예수는 참 깨달음을 얻은 인간이지 진정 신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도전과 반대로 예수는 신이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분파들의 도전이 있었다. 동시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당국자들의 눈에는 제국의 반역자들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교 예배와 관련된 악의적인 소문들 또한 각 지역의 총독들이나 당국자들에게 큰 불신을 일으키는데 한몫했다. 오해와 불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참혹한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죽어갔다. 사도 교부들 앞에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작은 촛불과 같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정비하고 박해를 이겨내고 건강한 신앙을 뿌리내리게 해야 하는 무거운 숙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ca. 50-ca. 117)가 보여준 박해에 맞선 당당함과 교회를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는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2세기 초반에 로마에서 순교했다. 우리는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의 감독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다가 로마에 압송되는 신세가 되었는지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군인들에 의해 시리아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지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각지의 교회 대표들에게 그는 일곱 개의 편지를 남겼다. 그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는 순교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태도와 열망을 잘 보여준다.⁹⁾

8) 사도교부라는 말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해 그들이 남긴 글을 나열해 보자면, “로마의 클레멘트 감독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설교,” “안디옥 이그나티우스 감독의 서신들,”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프이 빌립보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폴리카프의 순교사화,” “디다케(12사도의 가르침),” “바나바의 가르침” “헤르마스의 묵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 “파피아스의 단편들”이 사도교부 문헌으로 현재까지 전해진다.

9) 이그나티우스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은 M.W.홀메스 편집, 이은선 역, 『속사도교부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39-146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사면하려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노력을 중단하라는 단호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다. 사면을 위한 그들의 노력은 그가 “하나님에게 향하는 길을 막는 일(1.2)”이라고 호통을 친다. 이 순교의 길은 “하나님께서 동로마로부터 자신을 소환하여 서로마에서 발견되도록 이미 준비하신 제단(2.2)”이기 때문이다. 그는 순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호소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도착하도록 내가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밑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 갈아지고 있습니다. ...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그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희생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4.1~2)

사실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적 열정은 현대인들에게 너무 무모하게 보일 뿐 아니라 당혹감마저 안겨준다. 그의 글을 깊게 읽지 못한 이들은 오직 죽음만을 바라는 ‘신경증 환자’로 그를 오해하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교회에 보냈던 6개의 서신을 모두 읽는다면 그런 비판이 얼마나 이그나티우스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여러 가지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해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잊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고 싸워나가기라 다짐한다.

그에게 순교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고 배우며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허락하신 순례의 길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노예(4.3)”가 되는 것이다. “노예” 혹은 “죄수”가 되어 무언가를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며 가는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들으며 배우며 끌려가는 길이다(4.2). 이그나티우스는 누군가에게 고발되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 순간이 되어서야 드디어 예수의 길을 가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로 가는 순례의 길은 순교라는 완전한 자기 비움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빵’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

과 하나 되는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오히려 그리스도교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도전받고 고난 겪을 때) 가장 위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3.3). 이그나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힘들지만 기쁘게 갈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를 위한 로마인들의 사면 노력은 오히려 그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유혹이었다.

정리하자면 초대교인들에게 순교는 폭력적인 제국의 박해에 맞서서 그리고 물리적 박해가 사라진 시기에도 끊임없는 내적 유혹과 싸우며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가장 완벽한 길이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와 같은 순교자들은 내, 외적 유혹에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굳건하고 단호하게 진리와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나침반들이었다.

기독교 박해의 원인과 경과

김유준 목사(은진교회, 한신대학교 겸임)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장기 집권(31 B.C.-A.D. 14)으로 황제의 권력은 신성화되었고, 기독교는 그 이후로 300년간 박해를 받았다.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의 원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초대교회 기독교 박해는 로마제국의 정치적 이유의 박해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이교 제의의 종교적 갈등, 그리고 기독교 이단 사상과의 교리적 갈등 등 다양한 원인과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의 미움, 로마 종교와의 충돌, 황제숭배와의 충돌 등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의 원인을 비단 국가에 충성하려는 관리들의 정치적 소행만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합세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박해보다는 다른 원인들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간접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교회사가들은 기독교 박해의 원인을 종교적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황제숭배로 상징되는 국가 권력과 기독교 신앙, 다신교와 유일신교의 관계에서 본다. 로마의 종교적 관용과 불관용이라는 도식에서 박해의 원인을 보려고 한 필립 샤프(Philip Schaff)나 이교신앙과 기독교의 혁명적이고 비위협적인 주장 간의 대립으로 본 라투렛(K.S. Latourette)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에드워드 기번으로 대표되는 고전주의적 역사가들은 정치적 입장에서 박해의 이유를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기번은 기독교가 민족이 아닌 종파라는 점과 기독교의 배타성에 주목하면서 박해의 책임이 기독교 측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에 접근한다. 즉 썸 크로아(G.E.M. de Ste. Croix)와 셔윈-화이트(A.N. Sherwin-White)는 박해의 법적 근거에 많은 관심을 쏟는다. 프렌드(W.H.D. Friend)는 로마의 이방 종교에 대한 관계와 유대교의 기독교 박해와의 관계 규명에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톰슨(J.W. Thompson)은 기독교 박해의 사회경제적 배경 이해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의 원인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는 그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주후 64년 네로(Nero)에 의한 박해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로마제국의 박해는 없었고 대체로 유대인들의 적개심의 결과인 소규모의 박해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순교자가 스테반과 야고보이다. 제국은 양측에 분쟁

에 대해 무관심했고 어느 쪽도 편들지 않았다. 두 번째 시기는 네로 박해 이후 주후 250년 데치우스(Decius) 박해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황제들이 직간접으로 박해에 관여했지만 비조직적이고 지방적이며 고립된 박해였다. 때로는 많은 희생자가 났지만 대체로 단기간 내에 끝났다. 세 번째 시기는 250년 데치우스 박해로부터 303년에 일어난 대박해 때까지의 기간이다. 데치우스(Decius; 249~251년) 황제는 로마국가 기원 천년의 대축제를 가진 다음, 로마국가 불행의 원인을 기독교의 성장에 대한 로마 신들의 진노로 돌리면서, 250년에 날을 정해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로마의 신들과 황제의 신상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고, 불복하는 자에게는 유배, 고문, 투옥, 사형의 벌에 처했다. 이 기간에는 제국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박해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제1절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교 제의의 종교·문화적 박해

유대인들은 로마제국하에서 유일신 신앙이 있었지만, 기독교와 달리 로마제국과 시민들로부터 큰 박해를 받지 않았다. 그것은 헤롯 가문의 로마제국에 대한 열성적인 충성심으로 인해, 아우구스투스가 호의를 베풀었고, 이것은 곧 제국 전체에 걸친 반유대주의를 저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 총독이 파견되기 전부터 헤롯 가문이 분봉 왕(client king)의 지위를 획득하여 통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며 헤롯 가문처럼 로마제국과 황제의 비위를 맞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열심 당원(Zealots)처럼 적극적으로 로마제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맞선 부류도 있었으며, 에세네파나 콤란 공동체와 같이 종말론적 삶을 지향하는 탈속적 부류들도 있었다. 하지만 로마제국 전역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로마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유대인과 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양면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로마인들은 유대인들과 우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조상 전래의 관습과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이들의 배타적이고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혐오하고 있었다. 즉 금지된 음식, 안식일, 할레 등은 의혹과 불신을 초래했다.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유대인들과의 종교·문화적 갈등 요인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전가되었다. 즉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유사한 종교로 이해된 당시에, 유대교가 지난 배타성으로 인한 이교들의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 인한 유대교인들의 박해까지 이중의 박해를 받았다.

유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무엇보다도 종교적인 이유였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밝힌 대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하여 십

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감이 한층 더 심화해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연하게 원수로 간주하여 고문하거나 죽였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카프(Polycarp)의 순교 배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유세비우스는 증언하였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유대인을 가리켜 “박해의 원천”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는 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안식일(토요일)의 회당예배와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주일(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또한 위선자들(유대인들)이 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금식 대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할 것을 강조했으며,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유대주의는 많은 유대인의 격심한 반발을 자아냈고 충돌을 일으켰다.

로마제국의 종교는 다신교였기에 유일신 신앙의 기독교는 무신론자로 간주되었다. 로마제국의 관리들은 종교를 국가의 번영과 안전에 결부시켜서 신들의 가호로 믿고 있었기에, 제국에 홍수나 지진, 기근과 전염병 등이 생기면 기독교라는 새 종교의 유행 때문이라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던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타파와 우상숭배와 관련된 일체의 직업 - 군 복무도 포함 - 을 거부함으로써 이방 종교 숭배자들과 관련 직업인들의 미움을 샀다. 이러한 미움이 로마제국의 관리들에게 영향을 끼쳐 정치적, 사회적 박해가 가속화된 것이다.

성찬과 축귀 등의 기독교 의식들도 이교도들과 관원들의 의혹과 박해를 받았다. 마귀를 쫓는 의식을 마술로 받아들인 로마 관리들은 당시 마술사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이나 십자가형, 맹수에게 던져 죽였다. 그래서 이교도인 켈수스도 그리스도인들의 축귀 사역을 보고 마귀와 동맹을 맺은 무리라고 왜곡했다. 또한, 성찬에 대해서도 은밀한 집회를 통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오해로 사회적으로 격리를 초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와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들이 결혼하길 싫어한 일, 아이를 내다 버려 죽게 하는 남편의 권리에 대한 그리스도인 아내의 저항 등 종교·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박해가 있었다.

제2절 로마제국의 황제숭배를 통한 정치적 박해

로마제국은 정치와 종교가 미분화된 고대국가의 하나로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는 신정정치가 아닌, 정치가 종교를 지배하는 전형적인 전제정치 체제였다. 공화

정을 무너뜨린 정치 권력으로서 스스로 신격화(consecratio)할 수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숭배를 로마 여신숭배와 결합했고, 자신의 생일에는 큰 축제와 함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 결국, 황제숭배는 제국에 대한 충성의 종교적 근간을 제공해주었고, 제국의 통합이념으로 발전되었다.

로마제국 황제들은 정치적 평화정책의 하나로 모든 속국의 재래종교를 허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 종교들의 관리를 지방행정부에 일임했다. 다수의 외국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의 재래종교를 도시마다 가지고 들어와 살았기에 로마제국은 종교적 융합과 공존을 통해 다신교 사회가 되었다. 외래 종교가 로마에 들어오는 데는 국가의 승인이 필요했고, 제국에 해롭다고 인정될 때는 배격했다. 즉 국가적 충성과 로마의 법과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조건 아래에 관용된 것이었다. 정치적 충성은 국민의 종교적 일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재래종교의 관용과 동시에 반드시 로마 여신숭배를 함께 해야만 했다. 또한, 국가의 공적 제식 참여도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국가종교예배를 로마제국의 정치적 통일의 정신적 상징이었기에 이를 응당한 존경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거나 신성모독자로 치부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종교정책과 황제숭배는 우상숭배였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에 응당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인간의 권력을 절대화할 때, 그 신격화의 허구성과 타락성은 로마를 철저히 부패시켰다. 즉 아우구스투스의 일인 독재와 장기집권이 지난 후 권력 찬탈을 위한 온갖 음모가 성하여 티베리우스(Tiberius; 14~37년) 황제 치하에서는 하루도 처형 없이 지나는 날이 없었고, 그 자신도 평생 의심 많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칼리굴라(Caligula; 37~41년)는 많은 귀족을 광산이나 도로 공사장으로 유배시키거나 야수들에게 던진 살생의 화신으로서, 부모들에게 자기 자식들의 처형을 목격시켰으며, 처형할 때는 많은 상처를 내게 한 다음에야 죽였다. 그가 좋아하는 시구도 “그들이 나를 증오케 하라”는 것이었다. 네로(Nero; 54~68년)는 그의 모친(Agrippina)이 남편 클라우디우스(Claudius; 41~54년) 황제를 독살한 후 등극하여 그의 정적은 물론 친모와 아내, 의형제와 숙모 등 가족 친척들까지 의심의 대상이면 죽여 없앴고, 스승인 세네카를 비롯한 귀족과 명사들을 죽였다.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81~96년) 역시 그러했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는 개인적 경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 종교의식의 문제였다. 로마인들에게 종교란 단지 모든 선량한 시민의 정치적 의무로서, 공동체 종교의 격식을 예의 바르게 존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단순히 국가 정치체제의 일부에 불과했다. 키케로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자기의 특정한 신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무도 어떤 새롭거나 외국의 신들을 공법에 의해 인정을 받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말해 주었다. 즉 로마의 종교

정책은 공화정 이래 종교를, 외래종교를 포함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가 주관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비애국적 행위이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었기에, 제국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처벌에 대한 로마제국의 법적 근거는 굉장히 빈약했다. 그리스도인들은 플리니우스(Plinius)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었다. 서린-화이트는 플리니우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치스러운 행위(flagitia)”가 없음을 발견한 뒤, 그들을 단죄한 진정한 근거는 정무관의 “합당한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절한 불순종(contumacia)”이 되었으며, 2세기와 3세기 초에 이 불순종은 공적 반대의 핵심이었다고 한다. 반면 썸 크라운은 플리니우스가 불순종(contumacia)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한 자에게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부인한 자에게만 그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 요구했으며,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가 심문을 받은 뒤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요소가 박해의 법적 기초가 될 수는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단죄에서 본질적 요소는 기독교의 불법성이지 법정에서의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썸 크라운은 기독교의 박해는 “이름 때문에” 받은 박해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재판에 있어서 “법적 근거는 없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무관들의 그리스도인 처형은 법에 의한 판결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행정관과 사법관을 동시에 지닌 정무관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것이라 하겠다.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합당한 법률적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결국 로마당국의 기독교 박해의 동기는 “권력체제의 유지보존”과 “제국의 정치적 안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3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코이노니아와 순교신앙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는 것을 신앙고백의 확인으로, 순교를 최고의 미덕으로 알았다. 그래서 이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박해가 올 때 피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 그대로 순교자가 되거나 혹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즉 3세기 이전의 교회는 여전히 ‘구별된’ 사회, 즉 일반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회로 보았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모든 것을 공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높은 가치관으로 재물을 서로 나누었으며, 상부상조

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희년 선포의 핵심이 되는 토지법이자 예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자발적으로 성취하였다. 즉 이들은 생계에 필수적인 것들에 자족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채로 지내면서,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칭송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부에 대한 소유권이 부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는 절대주의자들의 태도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당시의 모호함 속에서 절대적 무소유의 색다른이나 만연된 절대적 소유권에 관한 로마법 철학을 거부하면서, 클레멘스는 물질적 재산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대다수가 빈곤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도 소수가 사치스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엄중하게 선포했다. 즉 자족과 코이노니아를 중심 가치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과 신앙을 위해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스도인 병사가 군대에서 황제숭배와 로마 여신에게 드리는 공식 제식을 거부하여 최초로 순교하였다. 임신 8개월 된 펠리치타스(Felicitas)가 형장으로 끌려갔을 때, 관리가 맹수에게 던져질 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냐는 질문에, “지금은 나 혼자서 고통을 받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때는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실 것이다”고 말했다.

카르타고의 귀족 출신으로 22살인 페르페투아(Vibia Perpetua)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젖먹이가 있는 여인이었다. 페르페투아가 옥에 있을 때, 늙은 아버지는 그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녀의 품 안에 안겨주면서 그가 신앙을 포기하고 옥에서 벗어나도록 권고했다. “딸아, 이 백발의 노인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네 아버지를 동정해다오. 제발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다오. 네 형제와 어미를 보라. 그리고 네 어린아이를 보거라. 제발 우리를 망하게 말아다오.” 그때 페르페투아의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재판은 그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고통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빵이며, 맹수들의 사나운 이에 갈기갈기 찢겨 그리스도의 순결한 빵으로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프(Polycarp)도 백발이 된 그를 가련히 여겨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자,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된 일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욕되게 부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하고 있지만, 그 불은 한 시간 정도 타다가 꺼지기 마련이요.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심

판의 불, 영원한 형벌의 불이 예비 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소.”

이렇듯 초대교회는 삼백 년에 걸친 장기간의 박해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정화되었고 박해 중에도 교회는 확장되었다. 오히려 교회의 박해가 중지되고 외적인 번영이 시작되면서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로마제국의 박해와 초대교회의 순교신앙

김유준 목사(은진교회, 한신대학교 교회사 겸임교수)

I. 들어가는 말

주후 313년 이전까지 초대교회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요인 등 여러 원인으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그 박해의 종국은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공인과 국교화였다.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를 군림한 로마제국의 거대한 정치 권력이 그토록 보잘것없고 군사적 저항조차 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변방 종교인 기독교가 어떻게 공인되고 국교화되었는지는 수많은 학자에 의해 연구되었다.¹⁰⁾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공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를 감내해야만 했고, 처절한 순교와 형극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과 테오도시우스(Theodosius I) 황제의 기독교 국교화를 통해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종교로 자리잡혀감에 따라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의 승리로 자축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공인 자체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제국 통일과 권력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기독교 정체성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독교의 공인으로 박해받던 교회가 특권을 누리는 교회로, 대중들의 메시아적 희망을 심어준 공동체가 특권층의 기독교를 누리는 제도적 교회로, 종말론적 시간의 공동체가 현실에 안주하는 공간의 공동체로 변화됨으로써 그 본래의 기원과 목

* 이 글은 필자의 연구논문,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와의 관계사,” 『대학과 선교』 35(2017), 183-212를 재인용한 것임.

10) John Curran, *Pagan City and Christian Capital: Rome in the Four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Michele R. Salzman, *The Making of a Christian Aristocracy: Social and Religious Change in the Western Roman Empi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eter Brown, *Through the Eye of a Needle: Wealth, the Fall of Rome, and the Making of Christianity in the West, 350-550 A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John Moorhead, *Ambrose: Church and Society in the Late Roman World* (London: Routledge, 2013); Christopher P. Jones, *Between Pagan and Christia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Edward J. Watts, *The Final Pagan Generation*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표, 그리고 과제와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권에 도취 된 기독교는 당시 로마제국의 모순된 정치적 경제적 권력체제를 승인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이른바 로마제국의 정치적 보편주의와 가톨릭의 종교적 보편주의가 궤를 같이 하면서 발전되었다.¹¹⁾

이에 당대의 경건한 교부들은 성서적 신앙과 윤리에 근거하여 초대교회의 세속화와 변질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특히 로마제국 시기의 초대교부들은 재산을 잃고 쫓겨난 수천의 참혹한 탄식들을 유산계급의 냉담한 세상에 대변하는 선지자들로써 로마법이 제공한 절대적이며 독점적인 소유권 개념을 공박하기도 했다.¹²⁾ 그렇기에 기독교 공인 이후에도 교리적인 갈등을 비롯한 교회와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렇듯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구분에 따른 차이점과 교회와 국가 각각의 입장의 차이점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1~2세기에 걸친 국가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복종과 순응의 태도가 주도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베드로전서 2장과 로마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등의 신약성서 본문에 근거한 사도들의 입장과 클레멘스(Clemens)와 폴리카르푸스(Polycarpus) 등 사도적 교부들의 서신에 나타나 있다. 특히 로마서 13장에 나타나는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적인 바울의 입장은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계승되고 있다.¹³⁾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13-14, 17에서도 국가에 대한 복종적 태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클레멘스 1서 60:4에서도 만백성의 일치와 평화를 기도하면서 교회의 교부들도 지상의 지배자들의 신복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폴리카르푸스의 서신 12:3에도 박해하고 미워하는 왕들과 지배자들과 방백들을 위해서는 물론, 심지어 적대적인 이단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폴리카르푸스가 박해에 직면한 신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10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¹⁴⁾

11)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245-246. 정용석은 이에 대해 초대교부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로마제국에 대한 변천을 다루었다. 정용석, “초대교부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 『대학과 선교』7(2004), 125-148.

12) Carles Avila, *Ownership: Early Christian Teaching*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152. 김유준 옮김, 『소유권: 초대 교부들의 경제사상』(서울: CLC, 2008).

13) 이에 대해 바울이 로마의 크리스천 공동체 멤버들에게 로마제국에 세금을 적극 납부함으로써 황제숭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매우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승문, “로마교회의 납세문제와 로마제국: 바울이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납세를 권면한 이유(롬 13:1-7),” 『대학과 선교』 27(2014), 39-74.

14) 염창선, “4세기 교회와 국가의 ‘교회정치적’ 차원,” 『한국교회사학회지』18(2006), 97-98. 반면 이러한 전통적 해석과 달리, 바울의 입장이 결코 순응적이지 않고 종말론적 신앙에 근거한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음을 논증하는 연구도 있다. 차정식, “공권력에 대한 바울

하지만 3세기의 교회는 세속국가로부터 교회를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했다. 유세비우스(Eusebius)가 증언한 대로, 사모사타의 바울이 안디옥 종교회의(268/9년)에서 파문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독으로서의 부적절한 덕목, 즉 그 당시 로마 총독과 같은 고위관료 흉내를 냈다는 것이 기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3세기 교회의 감독이 세속국가의 고위관료가 누리는 특권과 혜택을 행세하려는 것조차도 비난과 파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¹⁵⁾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4세기가 되면 급변하게 된다.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의 세속화 혹은 세속정치화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의 혜택과 특권은 당연히 여겨졌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감독들에게 성직자의 특권을 부여하고 시민의 의무, 즉 병역의무와 납세의 의무 등으로부터 면제 시킴으로써 감독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면책특권과 다양한 명예 칭호를 통해서 고위 공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¹⁶⁾

반면 교회에 대한 국가, 곧 로마제국의 태도 역시 313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초기 3세기 동안 로마 황제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에 대한 종교정책은 박해가 주된 현상이었고, 박해하지 않은 시기에도 보통은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이었다. 하지만 4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제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중추적 협력자로 간주 되어 관용과 우호, 심지어 비호와 특혜를 받게 되었다.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권력의 상층부까지 영향력이 미쳤고,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로까지 변화되기도 했다.¹⁷⁾ 그래서 종종 감독들의 지위와 그들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

의 정치적 현실주의: 롬 13:1-7,” 『성경연구』4/12(1998), 61-81; 차정식,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서울: 포이에마, 2015).

15) 염창선, “4세기 교회와 국가의 ‘교회정치적’ 차원,” 97-99.

16) E. Jerg, *Vir venerabilis*, “Untersuchungen zur Titulatur des Bischöfe in den außerkirchlichen Texten der Spätantike als Beitrag zur Deutung ihrer öffentlichen Stellung,” *WBTh* 26(1970), 286.

17) 이러한 교회정치의 주제, 대상, 목적에 따라 뮐하우젠은 3가지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1) 국가의 교회에 대한 정치를 의미한다. 즉 교회정치의 주체는 국가나 해당관청 및 주무부서이며, 그 대상은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교회나 이에 준하는 종교집단이다. 교회정치의 목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고, 교회정치의 기준은 교회라는 현상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2) 교회의 국가에 대한 정치이다. 교회정치의 주체는 교회이고, 그 대상은 국가적 결정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적인 기관들이다. 교회가 국가나 사회단체에 대한 요구나 요청을 인식시키거나 관철하는 것이 교회정치의 목표이며, 교회정치의 기준은 복음을 한 국가나 사회에 전파하기 위한 교회적 차원에서의 요구에 달려있다. (3) 교회의 교회에 대한 정치, 즉 교회간의 정치, 때로는 교회내의 정치를 의미한다. 교회정치를 수행하는 주체와 대상은 동일하게 교회내의 한 개인이나 집단이며,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을 합당한 길을 가도록 이해를 도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정치의 기준은 각각의 교회의 성서와 신앙고백에 결부된 기본규정들이다: J. Melhausen, *Kirchenpolitik*, “Erwägungen zu einem undeutlichen Wort,” *ZThK* 85/(1988), 275-302. 염창선, 101-103에서 재

서 불평이 생길 만큼 감독들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렇듯 4세기에 접어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1~3세기까지의 박해와 순교의 모습과는 현격히 구별되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로마제국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 로마제국 내의 기독교 사회의 상황과 특징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 박해가 가져온 제국 내의 결과와 초대교회의 주요 교부들의 교회와 국가 간의 사상을 되짚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로마제국 중심의 시각에서 연구되어 온 교회와 국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도 시도하고자 한다.

II. 로마제국의 기독교 사회

1. 로마제국의 역사와 정치적 상황

초대교회사는 로마제국사와 깊은 관련이 있기에,¹⁸⁾ 초대교회에 대한 이해는 단지 신학이나 종교와의 관계만이 아닌, 로마제국의 역사와 함께 다룰 때 가능하다. 로마는 그리스의 고전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기독교를 세계종교로 발전시킴으로 서양문명의 모체가 되었다. 즉 로마는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토양이었기에, 기독교와 로마제국이 빚었던 정치적 이해와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로마는 주전 753년 4월 20일, 쌍둥이인 로물루스(Romulus)와 레무스(Remus) 형제에 의해 중부 이탈리아의 티베르(Tiber) 강가에 세워진 도시로 전해진다.¹⁹⁾ 로마 초기에는 에트루리아인(Etruscan)이 왕정(주전 753-509)을 세웠²⁰⁾ 출발한 후, 라틴족이 왕정을 타도한 이후 공화정(주전 509-27)을 세웠다. 초기 공화정 시대(주전 509-272)는 귀족정이었는데, 전쟁 수행 공로로 인한 평민의 지위 향상이 함께 있었다. 후기 공화정(주전 272-27)은 3차례의 포에니 전쟁(주전 264-146) 이후

인용함.

18) R. M. Grant, *Christian and Roman History, The Catacombs and the Colosseum*, ed. S. Benks & J. J. O'Rourke (Judson Press, 1971).

19) Ralph W. Mathisen, *Rome*, ed. Everett Ferguson, *Encyclopedia of Early Christianity*, 798.

20) 제5대 왕은 에트루리아인 Tarquinius Priscus(주전 616-578년), 제6대 왕은 라틴인 Servius Tullius(주전 578-534년), 제7대 왕은 에트루리아인 Tarquinius Superbus(주전 534-509년).

지중해 세계를 기반으로 대제국을 형성하였다.²¹⁾ 삼두정치(Triumvirate)²²⁾를 거쳐 로마는 제정(주전 27년-주후 476년) 시기에 접어드는데, 원수정(Principatus: 주전 27년-주후 235년) 시기에는 황제와 원로원이 권력을 양분하여 로마의 평화시대였다. 군인황제(235-285) 시기에는 정치적 혼란기였고, 전제 군주정(Dominatus: 285-476) 시기에는 기독교가 가장 혹독하게 박해를 받았고,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어 국가종교의 형태를 이루는 시기였다.

원수정 시대에 원로원은 주전 27년에 모든 권력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에게 종신 집정관, 원로원 의장, 최고의 재판관을 겸한 전승 장군(Imperator), 신성한 자(Augustus)라는 호칭을 부여함으로 로마제국(Roman Empire)이 시작되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속주 민의 고유한 문화, 종교, 사상 등에 관용정책을 취함으로 세계화와 보편화라는 세계동포주의를 만들었다. 옥타비아누스(Augustus: 주전 27년-주후 15년)의 40여 년간의 치세동안 로마제국은 내란과 혁명을 종식하고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구현시켰다. 특히 5현제 시대(96-180)²³⁾에는 로마제국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해, 이 시기에 도로가 정비되었고, 로마법이 보급되었으며, 화폐와 척량술이 통일되었다.

한편, 로마제국의 종교정책은 유대 전쟁 이후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다. 유대 전쟁 동안 로마의 군대가 큰 손실을 보았고,²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의 국가종교 행사와 군 복무 거부 등으로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다.

3세기의 로마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과 제위 계승에 대한 군대의 입김으로 약 50년간(235-285) 50명의 군인이 황제로 등극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내외적인 혼란기였다. 이러한 혼란기에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284-305)가 내란을 진압하고 군사적인 개혁을 통해 제국을 다시 통일했다. 그는 공화정의 원수정 제도를 없애고, 강력한 군주정을 만들었다. 그는 285년에 막시미아누스

21) 조명은, 『기독교와 로마제국』(서울: 성경읽기사, 1998), 12-17.

22) 제1차 삼두정치는 갈리아의 폼페이우스(Pompeius)와 이집트의 율리우스 케사르(Julius Caesar), 그리고 로마의 크라수스(Crassus)였는데, 케사르가 루비콘강에서 승리한 이후 로마의 집정관으로 취임(주전 45년)하였다. 제2차 삼두정치는 케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Octavianus)와 이집트의 안토니우스(Antonius), 그리고 아프리카의 레피데스(Lepides)의 시기이다.

23) Nerva(96-98), Trajanus(98-117), Hadrianus(117-138), Antoninus Pius(138-161), Marcus Aurelius(161-180).

24) 제1차 유대전쟁은 네로(Nero) 황제가 갈루스(Galus)에게 3만 명의 병력으로 진격케 했으나 유대에게 패배해, 이후의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의 아들인 티투스(Titus)가 주후 70년에 8만 명의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했다. 제2차 유대전쟁은 132-135년에 일어나 로마에게 진압되었다: Josephus, *Wars of the Jews*, II. 14, (London, 1960), 485-488.

(Maximianus)를 자신과 함께 공동황제로 임명하여 아우구스투스(Augustus)라 칭하고 제국의 서반부를 통치하게 했고, 공동황제 각각 카이사르(Caesar)라 불리는 부황제를 임명하게 하여 명백한 계승자로 지명했다.²⁵⁾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승배를 통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최대, 최고로 박해한 황제였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306-337)는 분열된 제국을 통일하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기독교는 국가종교로서의 발판을 확립하게 되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379-395)가 392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제국을 이분하여 서로마는 호노리우스(Honorius; 395-423)에게, 동로마는 아르카디우스(Arcadius; 395-408)에게 나누어 상속해 주었다. 이로 인해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리되어 제국의 약화를 초래했고 서로마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국, 서로마의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황제(Romulus Augustulus; 475-476)는 서고트족의 오도아케르(Odoacar)에게 멸망되었다.

주전 8세기부터 주후 5세기에 이르는 1200여 년 동안 로마는 서양사의 중심에 있었다. 공화정 로마가 공화주의, 평등주의라는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이룩했다면, 제정 로마는 세계동포주의(Cosmopolitanism) 사회구조를 형성했다. 이러한 세계동포주의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건설된 헬레니즘 사상에서 비롯된다. 알렉산더 대왕은 폐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도시 문화를 동서 문화의 융합으로 세계문화로 형성시켰다. 이로 인해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어 헬레니즘의 고전적인 문화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창이 되었고, 이 창을 로마가 바로 계승하게 되어 이 사상을 완성하게 된다.²⁶⁾ 제정 로마에서 세계 제국화라는 보편성이 창출되어 로마제국의 보편화와 세계동포주의는 정치, 경제, 사상, 종교에서 발전하게 되었고,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것이다.²⁷⁾

2. 로마제국의 사회적 상황

기독교 사상의 효과적 전파에 필수적인 조건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다.

25)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부황제로 갈레리우스(Galerius; 293-311)를, 막시미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티우스 1세(Constantius I; 305-306)를 부황제로 지명했다. 공동황제들과 부황제들은 각각 자신의 수도를 가지고 있고 집정관을 우두머리로 하는 독자적인 행정 각료들을 거느리며 자신이 동원하는 군대도 보유했지만, 모든 법률과 칙령들은 공동으로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지배자는 네 사람이었지만 로마제국은 하나였다: 윌리스턴 위커, 송인설 옮김, 『기독교회사』(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141.

26) A. R. Born, *Alexander the Great and the Hellenistic Empire* (New York: Penguin Books, 1948), 20.

27) 조명은, 『기독교와 로마제국』, 18-29.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평화, 효과적으로 조직된 교역로, 제국 내의 정치적인 통일, 스토아 철학 등이다. 한편 신앙과 도덕 사이의 상호관계 결여로 인한 비난을 받게 된 희랍·로마 다신교는 쇠퇴일로에 놓여있었지만, 새로운 기독교 운동에 대한 박해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로마제국 당시의 기독교 사회의 상황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²⁸⁾ 첫째, 네로 황제 이래로 박해와 일반적인 의혹을 받았기에 그들 자체의 안전을 위해서 비밀리에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비밀조직체라는 누명을 받게 되었다. 둘째, 이교도의 만신전(萬神殿)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기독교 선교를 위한 비타협적인 정열로 인해 로마적인 원리인 관용과도 상충되었다. 셋째,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군대나 관직에서의 공식적인 근무나 공공업무 종사를 황제숭배로 인해 거부했다. 넷째, 대중들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집회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만연되어 있었다. 하지만 로마의 행정장관이었던 플리니우스(Gaius Plinius Secundus; 23-79)는 그들에게 융통성이 없는 완고함과 황제숭배의 거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한다.²⁹⁾ 로마제국 쇠망사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Edward Gibbon)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존재에 대해 품고 있었던 순수하고 고상한 이념은 이교 대중들의 조잡한 개념에서 탈피하고 있었으며, 한편 이교도들은 어떤 육체적인 형상이나 가시적인 상징으로 표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친숙한 화려한 제전, 제단, 제물 등으로 꾸며지지 않은 영적이고 유일한 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했다.³⁰⁾

3. 로마제국 내 기독교의 사회적 특징과 의미

이러한 로마제국의 상황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독교는 전통적인 로마 사상과 헬레니즘 문화의 토양에 뿌리를 내렸다.³¹⁾ 기독교의 새로운 개념은 세속에서 초연한 데 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느끼게 하는 이념이었다. 그것은 철학적인 추상이 아닌, 현재와 영원토록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과 신비로운 합일과 조화였기에, 나름대로의

28) A. J. Rayner, “Christian Society in the Roman Empire,” *Greece & Rome* 11/33(1942), 113-123; 레이너/지동식 편역, “로마 제국의 기독교 사회,” 『로마제국과 기독교』(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236-249.

29) 앞의 책, 239.

30) Edward Gibbon,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vol. 1, (Chicago, 1952), XVI.

31) A. J. Rayner, “Christian Society in the Roman Empire,” 241.

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둘째,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교회가 공직과 군입대 거부 등의 비협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인 사이의 사회적인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들은 전적으로 세속정부에 충성을 바쳤고, 동료에 대해서도 깊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셋째,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보통 신앙과 도덕이 분리된 이교와는 기묘한 대조를 이룬 것으로서, 높은 인격적·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한 점이다. 기독교 사회의 높은 도덕 수준 유지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에서 감미와 빛을 주는 감화세력이었던 것이다. 평범한 남녀들의 쾌락에 대한 초연함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로마의 제전이나 의식 참여를 금지했으며, 극장과 원형경기장에서의 경기 및 야수와 투기, 그리고 경마 등을 금지된 세속적인 쾌락의 종류를 열거했다. 즉 세속적인 문제에 초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굳건히 신앙한다고 맹세한, 고도로 조직화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적극적인 선교 열정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정신의 전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한 신앙과 도덕의 혁명은 당시 사회에 새로운 인도주의적 정신을 널리 퍼뜨렸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정신은 당대의 스토아학파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들은 사회의 매춘행위와 노예제를 인간성의 타락으로 격렬하게 비난하였고, 비인도적인 행위 근절을 위한 수단으로써 관용과 상호 간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기독교 새로운 사회적인 가치관에 대한 공헌 역시 이와 유사했다. 즉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노예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노예로 하여금 소유주로부터 도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회적 신분 철폐와 해소의 자유의 법과 진리의 법이 선포되고 있었기에, 보편적인 인간성이 점점 강화되었다.³²⁾

한편 교회 조직의 확대와 영향력의 확장으로 인해 구조 내에 분열의 틈이 생겨, 그 속에 기독교 사회 집단에서의 지위를 노리는 인물들과 이단자들이 속출하였다. 즉 몬타누스주의자, 마니교도, 도나투스주의자, 영지주의자 등이 기존의 순수성과 전통의 통일성을 위협했다. 특히 밀라노 칙령으로 대중종교로 변해 버린 교회 내에 특권을 바라며 들어오는 구성원들로 인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정신을 변질시켰다.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주의적인 이상으로 인해 결혼과 성욕, 그리고 옷을 벗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목욕까지도 억제하도록 조장했다.

주후 4세기 초에 아타나시우스가 저술한『안토니우스의 생애』(*Vita Antonii*)가 발간된 이래, 속세로부터 일어난 수도사의 은둔은 자극을 받아, 수백 명의 정신적인 피난자들이 안토니우스(Antonius; 251-356)의 본보기를 따랐다. 니트리아 산에

32) 이는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의 경우에 잘 나타나 있다. 희년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남녀노소, 신분과 지위에 대한 차별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한 형제와 자매로 점차 철폐되었고,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수많은 노예와 천대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는 약 5천 명의 수도사가 있었고, 세라피온은 아르시노에서 만 명의 집단을 거느렸다.³³⁾ 점차 4세기 말에 이르면 수도원은 많은 순례자를 거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³⁴⁾

III. 초대교회의 로마제국에 대한 입장

지금까지의 분석이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와의 관계에서 국가가 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 이제는 교회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³⁵⁾ 즉 교회는 로마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고, 교회는 실제로 로마제국에 어떤 입장을 취했으며, 교회는 박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대교회 변증가의 로마황제에 대한 입장

락탄티우스(Lactantius)의 『박해자들의 죽음에 관하여』(*De mortibus persecutorum*)는 전적으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 그는 불경한 자들의 음모가 근절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황제들의 피에 굶주린 명령들이 철회된 데 대한 만족감을 서술하면서, 기독교 박해자들에 관해 역사적으로 요약했다. 락탄티우스는 네로, 도미티아누스, 테치우스, 발레리아누스, 아우렐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리고 그의 공동통치자들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그는 네로 황제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때까지 30명의 황제가 있었지만, 동시대를 제외하면 5명밖에 언급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다수의 선량한 황제들이 로마제국의 진로를 결정한 뒤이은 시기에 교회는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동방과 서방으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지상의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숭배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³⁶⁾ 이러한 점은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황제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심지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³⁷⁾

33) Antonius, *Historia Monachorum*, tr. Helen Waddell, *The Desert Fathers* (London: Constable & Co. Ltd., 1946), xviii, 21.

34) Samuel Dill, *Roman Society in the Last Century of the Western Empire* (New York: Meridian Books, 1962), 182.

35) 이러한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멜하우젠이 교회정치의 주제, 대상, 목적에 따른 3가지 차원 중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밀접한 것이다.

36) Lactantius, *De mortibus persecutorum*, III, 4.

37) Kurt Aland,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Early Times: A

테르툴리아누스도 『변증론』(*Apologeticum*)에서 박해자 명단으로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만을 꼽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르디스의 멜리토(Melito)에게서도 나타난다. 멜리토도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야말로 기독교에 불명예를 씌우려 한 유일한 황제들이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악인들의 선동이나 혹은 무지한 까닭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우호적인 관점을 통해 국가 영향력의 변화를 기도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자들과 어떻게 설명했으며, 타협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멜리토의 『변증론』은 소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박해에 관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를 향해, “만일 당신의 명령권 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황제는 결코 부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런 죽음의 영광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³⁸⁾

결국, 락탄티우스, 테르툴리아누스, 멜리토에 의하면, 국가가 교회에 대해 대부분 우호적이었거나 적어도 중립적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옹호한 타티안, 밀티아데스, 히에라폴리스, 아폴리나리스, 사르디스의 멜리토, 그리고 아테나고라스 등의 저술가들은 모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기록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칭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으로 대중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⁹⁾ 실제로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은 공중목욕탕과 시장에의 출입을 거절당했으며, 대로에서의 통행도 금지되었다. 그들은 대중들에게 사형을 당하도록 방치되었으며, 구타당하고 약탈당하고, 돌로 타박상을 입는 등의 모욕을 당했고, 마침내는 시장에 있는 시 당국에 끌려가 투옥되었다. 수감자의 수는 갈리아의 두 사회에서 계속 증가하여 어떤 지위를 유지하거나 특별한 명성을 누리던 모든 그리스도인까지도 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나이와 성과 관계없이 미리 마련된 방법에 따라 고문을 당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형경기장에서 사나운 동물들에게 던져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살해되었다. 옥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의 먹이로 던져졌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분적으로 불에 탄 시체들은 병정들의 감시하에 6일 동안이나 전시되었고, 마침내 화장되어 그 재는 론 강에 뿌려졌다. 테르툴리아누스 역시 일반 대중들 사이의 그

Reinterpretation,”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9(1968), 113-123; 쿠르트 알란트, 지동식 편역, “초기의 교회와 국가관계: 재해석,” 『로마제국과 기독교』, 221-235.

38) Tertulianus, *Apologeticum*, 26, 6.

39) Pamphili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2 vols. tr. by Roy J. Dererrari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3), V, 1 cols.

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대한 증오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⁴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제국은 그들의 국가로서, 로마국가에 관한 신학적인 관점 이외에, 공리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쿠르트 알란트(Kurt Aland)는 주장한다.⁴¹⁾ 즉 국가에 대해 손해를 미치는 행위는 그들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며, 로마제국에 이익이 되는 행위는 그들 자신에게도 이로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멜리토, 테르툴리아누스, 락탄티우스 등이 그들의 역사연구에 이러한 점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본 것이다. 처음부터 교회는 국가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교회는 신성한 하나님의 기구로서의 로마제국에 한 가지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황제숭배였던 것이다. 하지만 로마제국은 교회에서 설정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황제 자신이 아닌, 기독교의 적인 악마에 의해서 인도되는 황제의 불량한 간신배들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보면,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은 대접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그동안 받아왔던 유혈적인 박해가 종식되었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신앙 상태와는 상관없이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즉 3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축적되었던 국가에 대한 충성의 필요성이 로마제국 전체에 퍼지게 되어,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감독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인정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회적 삶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스스로 국가의 울타리에 한정했던 것이다.⁴²⁾

2. 로마제국 황실과의 긴밀한 협력 혹은 강력한 대응

3세기 동안 로마제국의 박해와 제국 시민들의 비난 속에서 확장된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신앙을 지켜왔다. 특히 3세기에 더욱

40) *Ibid.*

41) Kurt Aland,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Early Times: A Reinterpretation," 113-123.

42) Hugo Rahner, *Church and State in Early Christianity*, tr. by Leo D. Davi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2), 298.

조직적이고 전제국적인 박해 속에서 세속화에 대한 경계와 구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4세기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즉 감독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특권과 혜택으로 인해 로마제국의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갔다.

그러한 감독들을 교회 정치력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황실 감독, 황실 신학자, 재판 감독 등으로 구별하기도 한다.⁴³⁾ 이러한 감독들은 황궁에 머물면서 황제의 측근에서 교회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황제의 자문역을 맡은 황실감독들이 있었다. 그 예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고문이었던 코르도바의 오시우스(Ossius)와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카이사르의 유세비우스(Eusebius), 그리고 아리우스의 절친한 친구요 지지자였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Eusebius)가 있다. 또한, 콘스탄티우스 2세 때에는 싱기두눔의 우르사키우스(Ursacius), 무르사의 발렌스(Valensa) 등이 있었다. 황실 측근을 맴도는 이런 감독들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서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320년 안디옥 종교회의에서는 자기 교구의 총감독이나 감독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황궁 출입을 금했고, 힐라리우스(Hilarius of Poitiers)는 이러한 황실 감독들에 대해 황궁에서의 영예를 노예적 굴종으로 비난했다.⁴⁴⁾

한편, 4세기 이후의 이런 추이 속에서도 이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교부들도 있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들은 국가의 권력에 편입된 황실 감독들과는 달리 때로는 황제와 정면으로 대립하기도 했고, 교회의 편에서 국가와 황제에 대해서 주권적이고 자주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표적인 교부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Athanasius)와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Ambrosius),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있다. 특히 유스티나의 월권행위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391년 세금폭등으로 인해 시위를 벌인 데살로니가인을 집단 학살한 사건에 대해 암브로시우스의 강력한 대처는 훗날의 아비뇽 사건을 연상시킬 만큼 국가에 대한 교회의 강력한 대응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19년 히포의 감독으로 재임할 때, 카르타고에서 세금폭등으로 저항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을 위해 아프리카 감독들과 함께 그들을 사면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고,⁴⁵⁾ 1,500마일 이상 캠페인을 벌이며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세금폭등으로 수감된 사람들의 사면을 촉구했다.⁴⁶⁾

이러한 초대교부들은 그 당시 교회가 로마제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음에도 교회를 지도하는 감독으로서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한 책무를 감

43) 염창선, “4세기 교회와 국가의 ‘교회정치적’ 차원,” 106-113.

44) Hilarius, *Const.* 5.

45) Peter Brown, *Poverty and Leadership in the Later Roman Empire* (Hanover &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2), 70.

46) *Ibid.*, 71; 김유준,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안산: 희망사업단, 2015), 61.

당했으며, 자주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즉 이들은 무엇보다도 교리와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목회적 차원에서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탁월한 언변과 치밀한 논쟁으로 맞섰다. 특히 황제를 비롯한 불의한 권력자들 앞에서도 선지자적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3.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로마제국과의 관계

동방교회에서는 황제들이 교회를 순수한 신앙과 진정한 교리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간주하였고, 교회도 그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부여한 통치자들에게 의해서 계승되었고, 그러한 전통은 연속성으로 유지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한번 경험한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의 ‘비잔틴풍’의 관계와의 공존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확고하게 확립되었고, 천 년 동안이나 희랍제국에서 보존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비잔틴 제국과 러시아, 동방의 일부 지방에서는 1917년까지 지속될 정도였다.

반면에 서방교회는 이와 같은 발전이 곧바로 중단되었다. 즉 이방인 권력자들과 게르만족의 발흥, 그리고 아리우스파와 같은 이단 교리와의 밀착 등으로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시작되었다. 서방교회에서 이런 입장은 암브로시우스에게서 잘 나타났다. 암브로시우스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수찬을 금지하며 참회를 강력히 촉구할 정도로 바른 가르침을 위태롭게 한 악한 국가의 수립을 저지했는데, 그것은 바로 황제의 불의에 대한 교리적 차원에서 대처한 것이었다. 암브로시우스는 국가의 재판권에 간섭하길 원치 않았으나, 이러한 선례는 점차 후대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인노첸티우스 3세에 이르면 국가에 대한 교회의 지배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IV. 나오는 말

지금까지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와의 관계를 기독교 공인 전후로 살펴보았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공인 이전의 박해받는 종교에서 공인 이후의 특권을 누리는 종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이후에도 로마제국 황제들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었으며, 초대교회의 교부들 역시 교회 정체성의 변질에 통렬한 경고를 하며 로마제국과 초대교회 간에 긴장 관계가 있었음을 보았다.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롯한 열강의 수탈이 심각한 구한말에 민족의 새

로운 소망으로서 등장하며 황실에서도 선교사들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국가와 교회가 맥을 같이했다. 하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로 탈속적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의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정치로 더욱 가혹해진 침탈로 한국교회는 점점 국가에 대한 참여나 저항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교계 지도자들도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교권을 지키고자 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순응은 물론, 신사참배 강요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신앙의 정절을 잃고 말았다. 해방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수많은 불의와 억압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었고,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다. 군부독재 치하에서도 일부 교단의 목회자와 노동자, 그리고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의한 체제에 대한 독재 타도와 민주화운동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정의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외면하며 개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이미 성장은 멈췄고, 오히려 급격한 감소의 위기에 돌아섰다. 게다가 대형교회의 목회세습과 각종 비리와 성추행을 비롯하여 끔찍한 살인사건까지 연루된 뉴스가 보도되며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초대교회사에 나타난 로마제국과 교회와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한국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를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제임스 우드(James E. Wood)는 공인 이전의 초대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정교분리인 ‘적대적 관계’로 보았다.⁴⁷⁾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와 로마제국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로마제국은 철저한 정교일치의 사회였다. 즉 로마제국은 황제숭배와 로마 여신숭배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황제의 권력 유지를 위해 종교를 철저히 이용한 정교일치의 사회로서 제국의 정치적 통일과 일치를 추구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 즉 기독교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로마 황제숭배 거부로 인한 무신론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이라는 미명 하에 철저한 금지와 박해를 당한 관계임을 의미한다.

반면 초대교회가 공인된 이후에는 정교일치의 유형인 ‘국가종교’로서 정치적 특권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⁴⁸⁾ 로마제국의 측면에서는 황제숭배를 통한 정교일치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한 정교일치 사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공인된 이후에도 초대교회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그 주도권이 여전히 국가에 비중이 컸기에, 국가의 개념 속에 교회가 편입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에서 국

47) James E. Wood, *Church and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A Critical Assessment and Annotated Bibliography* (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5), 4.

48) *Ibid.*, 2.

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교회정치의 세속화의 과정이 주도적이었다. 하지만 속권보다 교권이 상대적으로 주도적이었던 중세교회와는 달리, 여전히 속권이 우위에 있었지만, 점차 교회의 신앙과 교리적 영역에 대한 우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주도권은 강화되었다.

기독교 박해에 대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오히려 국가의 권위와 법을 대항해 집단적인 항변이나 폭력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금한 최고의 권위이자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은 제국의 법에 따라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 그것은 황제숭배와 이방 제의에 참여할 수 없는 더 큰 권위의 하나님 법에 위배 되는 것이기에 순교로써 제국의 법과 권위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순교신앙의 결과가 교회를 더욱 정화시켰으며, 교회 성장의 씨앗이 되어 기독교 확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수많은 성도의 순교의 열매로 획득한 신앙의 자유가 오히려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퇴색되며 변질되었다. 황제들의 제국의 정치적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일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의 이단과 개인적 야심을 목적으로 들어온 구성원들에게 교회는 점점 초기 기독교 사회의 영향력을 상실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권력과 법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윤리의 기준을 제시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다. 즉 국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로서 상호공존과 보완의 관계임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은 교리와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철저한 우위를 주장하였다.

초대교회사를 통해 비추어 볼 때,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자유를 획득했다.⁴⁹⁾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강조했다. “교회는 황제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보다도 박해를 받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⁵⁰⁾ 이러한 면에서 교회의 역설적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다. 교회는 결코 박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박해가 왔을 때, 교회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여기고 박해로부터 더욱 견고하게 헤쳐 나왔다. 아우구

49) 휴고 라너는 초대교회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투쟁 속에서 교회가 자유를 쟁취해 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즉 2-3세기를 순교자들의 시대로, 4세기를 콘스탄티우스 황제 치하에서 교회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5세기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6세기는 유스티니아누스의 투쟁, 6-8세기를 샤를마뉴 시대의 로마와 콘스탄티노플로 정리했다: Hugo Rahner, *Church and State in Early Christianity*, tr. by Leo Donald Davi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2).

50) Ambrosius, *De Obitu Valentiniani* 39, ed. J. P. Migne,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Series Latina, vol. 16, (Paris, 1844-64), 1371.

스티누스는 “비록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들이 지상의 도성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수모를 겪고 있지만, 교회는 인내함으로 세상에 대해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⁵¹⁾ 테오도레(Theodoret) 역시 그가 서술한 교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환난은 평화보다 훨씬 더 교회에 유익했음을 역사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평화는 교회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며 나약하게 만들지만,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며 변화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개의치 않게 만든다.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그분의 교회가 장차 환난 속에서 결코, 패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다.”⁵²⁾

암브로시우스도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속에서 이러한 말로써 대중의 신앙을 돈독히 했다.

“교회에 시험이 더욱 닥쳐올수록, 모든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당성은 더욱 견고히 서게 된다. 과거의 박해들은 결국 순교자들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주었다. 교회는 순결한 정금이기때문에, 불로써 시험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서 교회의 신앙의 면류관이 주어질 때까지, 교회의 영광은 더해만 갈 것이다.”⁵³⁾

결국, 초기 변증가의 저술에 나타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핍박과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호의적이며 공리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세기까지의 박해와 수난 속에서의 순수한 신앙적 열정과 달리, 4세기 이후의 기독교 공인으로 인한 황실 감독을 비롯한 교회정치의 세속화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아타나시우스와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은 교리와 신앙, 그리고 교회질서 수호를 위해서 국가와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태도가 동방교회에서는 황제가 교회의 순수한 신앙 수호자로 계승하게 되었지만, 서방교회는 점차 다양한 요인으로 교권과 속권의 분리 양상으로 나타났다.

51) Aurelii Augustini, *De Civitate Dei*, Libri xi-xxii. Aurelii Augustini Opera, pars xiv, 2.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Turnholti, Belgium: Typographi Brepolis Editores Pontificii, 1955), vol. 48, XVIII, 53, XIX 4.

52) Theodoret, *Historia Ecclesiastica* 5, 40, *Graecorum Corpus Scriptorum*, vol. 347, (Berlin, 1897), 11-17.

53) Ambrosius, *Expositio in Psalmum 118*, *Sermo* 3, 7, in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62, 44, (Vienna, 1866), 6-12.

참고문헌

- 김유준. “로마제국과 초대교회와의 관계사.” 『대학과 선교』 35(2017), 183-212.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제사상』. 안산: 희망사업단, 2015.
- 레이너/지동식 편역. “로마 제국의 기독교 사회.” 『로마제국과 기독교』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손규태. 『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알란트, 쿠르트/지동식 편역. “초기의 교회와 국가관계: 재해석.” 『로마제국과 기독교』.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염창선. “4세기 교회와 국가의 ‘교회정치적’ 차원.” 『한국교회사학회지』18(2006), 97-126.
- 위커, 윌리스틴/송인설 옮김. 『기독교회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이승문. “로마교회의 납세문제와 로마제국: 바울이 로마의 크리스천들에게 납세를 권면한 이유 (롬 13:1-7).” 『대학과 선교』 27(2014), 39-74.
- 정용석. “초대교부들의 하나님 나라 이해.” 『대학과 선교』7(2004), 125-148.
- 조명은. 『기독교와 로마제국』. 서울: 성경 읽기사, 1988.
- 차정식. “공권력에 대한 바울의 정치적 현실주의: 롬 13:1-7.” 『성경연구』 4/12(1998), 61-81.
- _____.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 서울: 포이에마, 2015.
- Aland, Kurt,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Early Times: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19(1968), 113-123.
- Ambrosius. *De Obitu Valentiniani*. Edited by J. P. Migne. *Patrologiae Cursus Completus*. 217 vols., Series Latina.; Paris, 1844. Vol. 16.
- _____. *Expositio in Psalmum 118, Sermo.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Vienna, 1866.
- Antonius. *Historia Monachorum*. Translated by Helen Waddell, *The Desert Fathers*. London: Constable & Co. Ltd, 1946.
- Augustini, Aurelii. *De Civitate Dei*. Libri xi-xxii. Aurelii Augustini Opera. pars xiv, 2.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Turnholt, Belgium: Typographi Brepolis Editores Pontificii, 1955. Vol. 48.
- Avila, Carles. *Ownership: Early Christian Teaching*.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3.
- Born, A. R. *Alexander the Great and the Hellenistic Empire*. New York: Penguin Books, 1948.
- Brown, Peter. *Poverty and Leadership in the Later Roman Empire*. Hanover & London: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2002.
- _____. *Through the Eye of a Needle: Wealth, the Fall of Rome, and the Making of Christianity in the West, 350-550 A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Curran, John. *Pagan City and Christian Capital: Rome in the Four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Dill, Samuel. *Roman Society in the Last Century of the Western Empire*. New York: Meridian Books, 1962.
- Eusebius, Pamphili. *Ecclesiastical History*. Translated by Roy J. Dererrari. 2 vols., in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53. Vol. 1-2.
- Ferguson, Everett. *Encyclopedia of Early Christianity*. NY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0.
- Gibbon, Edward.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Chicago, 1952. Vol. 1.
- Grant, R. M. Christian and Roman History. *The Catacombs and the Colosseum*. Edited by S. Benks & J. J. O'Rourke, Judson Press, 1971.
- Jerg, E. Vir veneralis, "Untersuchungen zur Titulatur des Bischöfe in den außerkirchlichen Texten der Spätantike als Beitrag zur Deutung ihrer öffentlichen Stellung." *WBTh* 26(1970).
- Jones, Christopher P. *Between Pagan and Christia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 Josephus. *Wars of the Jews*. London, 1960.
- Lietzman, Hans. *A History of the Early Church*. World Pub. Co., 1953. Vol. 1.
- Moorhead, John. *Ambrose: Church and Society in the Late Roman World*. London: Routledge, 2013.
- Rahner, Hugo. *Church and State in Early Christianity*. Translated by Leo D. Davis.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92.
- Rayner, A. J. "Christian Society in the Roman Empire." *Greece & Rome*. 11/33(1942), 113-123.
- Salzman, Michele R. *The Making of a Christian Aristocracy: Social and Religious Change in the Western Roman Empir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 Theodoret. *Historia Ecclesiastica. Graecorum Corpus Scriptorum*. Berlin, 1897. Vol. 347.
- Watts, Edward J. *The Final Pagan Generation*.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 Wood, James E. *Church and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A Critical Assessment and Annotated Bibliography*. Westport: Praeger Publishers, 2005.

羅馬(나마)의 監督(감독) 식스터스와 執事(집사) 라우렌스⁵⁴⁾

- 主後(주후) 二五八年(258년) 殉教(순교)

김재준 목사

로마의 殉教者(순교자)는 그 남긴 記錄(기록)이 甚(심)히 貧弱(빈약)한 것이 遺憾(유감)이다. 그러나 그 깨여진 조각 數三(수삼)¹⁾을 通(통)하여 지금은 주님의 면류관에 빛나는 그 完璧(완벽)²⁾을 想像(상상)하기로 하자.

例(예)의 발레리안³⁾ 皇帝(황제)의 逼迫(핍박) 때 羅馬(나마) 教會(교회)를 牧(목)한 이는 씩스터쓰⁴⁾ 監督(감독)이었다. 그는 希臘人(히랍인)으로서 아텐의 出生(출생)이었으며 敬虔(경건)한 牧師(목사) 仁慈(인자)한 司祭(사제)의 稱(칭)이 높았었다. 二五七年(257년) 八月(8월)에 強頸(강경)하기로 有名(유명) 스테반의 뒤를 이어 羅馬(나마)의 監督職(감독직)에 올른 그는 牧會(목회)한지 不過(불과) 一年(1년)만에 殉教(순교)의 榮冠(영관)⁵⁾을 얻게 된 것이다.

발레리안 皇帝(황제)의 第二回(제2회) 勅令(칙령)이 發表(발표)된 直後(직후)였다. 二五八年(258년) 八月(8월) 六日(6일) 씩스터스는 푸라에텍스타티스라는 私設墓地內(사설묘지내)에 監督(감독)의 椅子(의자)를 옮기고 거기서 敎人(교인)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는 그것이 私人(사인)의 構內(구내)니만치 조금 덜 危險(위험)하리라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探知(탐지)한 兵士(병사)의 一隊(일대)는 突然(돌연)히 侵入(침입)하여 그와 및 四執事(4집사)를 逮捕(체포)하였다. 「監督(감독) 司祭(사제) 及(급)⁶⁾ 執事(집사)는 卽席(즉석)에서 死刑(사형)에 處(처)하라」는 것이 皇帝(황제)의 勅令(칙령)이었으므로 兵士(병사)들은 얼마 前(전)에

장공김재준, 『낙수』 교문사, 1940년, 199~201.

『장공김재준저작전집(전5권)』 한국신학대학출판부, 1971년, 제5권, 398~399.

『김재준전집(전18권)』 한신대학출판부, 1992년, 제7권, 250~251.

1) 數三(수삼) - 둘이나 셋 또는 넷 정도의

2) 完璧(완벽) -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으로, 결점이 없이 완전함을 이르는 말

3) 발레리아누스 황제(Publius Licinius Valerianus ?~260) - 로마의 황제(재위 253~260)로 기독교 박해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카르타고 주교 키프리아누스와 로마 주교 식스투스 2세 등을 처형했다. 페르시아 원정시 붙잡혀 포로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4) 식스토 2세(Saint Sixtus II, ?~258.8.6) - 초대 로마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순교자,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박해로 순교하였다.

5) 榮冠(영관) - 쓴 사람의 영예를 드높여 주는 관, 영예로운 성공이나 승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及(미칠 급) - 여기에서는 및(그리고)의 의미로 쓰였다

붓잡어낸 그 자리에 그를 도로 끌어다 앉히고 거기서 斬首刑(참수형)을 執行(집행)하려 하였다. 激昂(격앙)한 信者(신자)들은 決死(결사)하고 兵士(병사)들에게 抵抗(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썩썩터쓰는 손을 흔들어 信徒(신도)들을 鎮定(진정)시키고 從容(종용)⁷⁾히 자리에 나아가 가장 靜肅(정숙)한 가운데서 칼아래 그 머리를 맡기었다. 七執事(7집사) 中(중)의 네 사람도 그의 뒤를 따랐다.

다음으로 殉教(순교)한 이는 저 有名(유명)한 라우렌스⁸⁾ 執事(집사)였다. 傳說(전설)에 依(의)하면 썩썩터쓰 監督(감독)이 죽을 자리로 向(향)하여 나갈때에 라우렌스 執事(집사)는 뒤에 따라가며 『아버지여 당신께서는 祭壇(제단)으로 나가실 때 늘 저에게 도움을 命(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저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한다. 그때 썩썩터쓰 監督(감독)은 그를 도리켜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오래지않아 더욱 榮光(영광)스러운 抗爭(항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흘 後(후)이면 너도 내 뒤를 따르리라』 하고 말하였다.

라우렌스는 首席執事(수석집사)로서 巨大(거대)한 教會財産(교회재산)을 맡은 이였다. 一千五百(1천5백)의 寡婦(과부)와 不具者(불구자) 極貧者(극빈자)를 살리는 救恤機關(구휼기관)만해도 그 會計(회계)가 얼마나 巨額(거액)임을 알 것이다. 이 內容(내용)을 窺知(규지)⁹⁾한 市長(시장)은 即時(즉시) 教會財産(교회재산)의 上納(상납)을 命(명)하였다. 라우렌스 執事(집사)는 財産整理(재산정리)를 口實(구실)로 一日間(일일간)의 猶豫(유예)를 請(청)하여 許諾(허락)을 얻은 다음에는 곧 나와 會堂內(회당내)의 金銀器皿(금은기명)¹⁰⁾과 裝飾(장식)을 沒數(몰수)¹¹⁾히 放賣(방매)¹²⁾하여 貧者(빈자)에게 分給(분급)하고 다음으로는 教區內(교구내)로 도라다니며 教會(교회)에 依存(의존)하던 數千(수천)의 貧者(빈자) 不具者(불구자) 等(등)을 全部(전부) 會堂內(회당내)로 召集(소집)하였다. 約束(약속)한 날 市長(시장)이 財産引繼(재산인계)하러 教會堂(교회당)에 들어올 때 그는 盲者(맹자) 啞者(아자)¹³⁾, 乞人(걸인) 病者(병자)의 一群(일군)을 가라치며 『자 이것이 教會(교회)의 實物(사물)이외다』 하고 말하였다.

7) 從容(종용)히 - 차분하고 들뜨지 않아 찬찬하게

8) 라우렌시오(Sanctus Laurentius, 225~258) - 초기 기독교 교황 식스토 2세 때 일곱 부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황제 발레리아누스의 박해로 순교하였다. 축일은 8월 10일

9) 窺知(규지) - 엿보아 알

10) 器皿(기명) - 집안 살림살이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

11) 沒數(몰수) - 수량의 전부

12) 放賣(방매) - 물건 따위를 내놓아 팔

13) 啞者(아자) - 언어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市長(시장)이 어느 程度(정도)까지 이 意味(의미) 깊은 諷刺(풍자)를 깨달았는지를 알수 없으나 그 豪放(호방)에는 자못 興味(흥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그러므로 그는 라우렌스를 斬首刑(참수형)에 處(처)하는 代身(대신) 좀 더 殘忍(잔인)한 方法(방법)으로 그의 膽力(담력)을 試驗(시험)해 보려 한 듯하다. 如何間(여하간) 그는 숯불 우에 적쇠를 걸고 라우렌스를 굽기 始作(시작)하였다. 한참동안 말없이 누어 굽히든 그는 옆에 서 있는 形吏(형리)를 부르며 『인제 이쪽 편은 다 굽혔는데 뒤집어 놓아야 저쪽 편도 굽히지요?』 하고 말하였다. 믿음은 勿論(물론)이어니와 그 氣概(기개)의 豪放(호방)함이 벌써 奎(진) 羅馬(나마) 帝國(제국)을 併呑(병합)하고도 남음이 있었음을 볼수 있지 않은가? 그의 遺骸(유해)는 히폴리티스란 信者(신자)와 줄리안이란 司祭(사제)의 손으로 피버틴路傍(노방)에 埋葬(매장)하였다. 이밖에도 식스티스 때의 殉教者(순교자)가 百二十名(120명)에 達(달)한 모양이나 그 行蹟(행적)은 可(가)히 상고 할 길이 없다.

史料(사료) 암부로스 어거스틴의 說教集(설교집)에 斷片的(단편적)으로 引用(인용)된 것이 最初(최초)의 史料(사료) 그 正傳(정전)¹⁴⁾은 五世紀(5세기) 中(중)의 作(작)임으로 口碑傳說(구비전설) 以上(이상)의 評價(평가)를 許(허)할 수는 없다.

14) 正傳(정전) - 정통적인 체계에 따라 씌어진 문학 작품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생애

김유준 목사(은진교회, 교회사)

시리아지방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AD 30~35년경에 태어났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라틴어 이름은 ‘불’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남성명사 ignis에서 유래하였다. 그의 이름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칠십여 평생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 잉태된 자”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는데, 이것은 이방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그나티우스는 세례명이 “테오포루스”(Theophorus; bearer of God,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다. 비잔틴의 성인전은 그를 예수가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어린아이를 기록하였다. 즉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무릎에 앉히고 축복하셨던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였다고 한다. 2세기 기독교 사회에서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존경과 신망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짐작케 하는 이야기이다.

히에로니무스가 이그나티우스를 사도 요한의 제자로 여긴 것처럼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다. 특히 베드로는 여러 해 동안 이그나티우스를 친밀하게 훈련시켰고, 그를 안디옥의 두 번째 감독으로 세웠다. 베드로가 AD 49년의 예루살렘 회의 이후 안디옥으로 갔고 그곳에서 이그나티우스에게 사상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바울은 AD 40년경부터 바나바의 동역자로 안디옥에서 사역하였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모두 안디옥에서 출발하였기에 이그나티우스는 바울로부터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히에로니무스는 이그나티우스가 AD 97년경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어쨌든 이그나티우스는 신약성서 기자들의 사상과 가장 밀접한 속사도 교부(Apostolic Father)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곱 통의 서신들을 쓴 때가 바로 로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가 죄인으로 로마에 압송되는 도중에 일곱 통의 서신을 썼다. 그는 그의 서신들 속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 자신의 순교에 대해 “하나의 진실 된 제물”임을 강조함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것임을 말하는 겸손의 고백을 하였다.

“기독교”(Christianismos)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용례는 이그나티우스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로마 당국자들과 충돌하게 만든 이름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당했다. 네로보다 더 잔인했다고 할 수 있는 도미티안 황제(AD 81-96)는 자기를 “주(主)요 또한 신”으로 숭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처벌함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마저 “무신론자”로 간주하여 처형했다.

3차 박해 때에 플리니 2세 총독은 기독교인 학살을 보고 연민을 느껴 트라얀 황제(AD 98-117)에게 서신을 보내 수천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만큼 로마 법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매일 처형된다고 증언했다.

“그들의 잘못, 혹은 범죄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단지 그들이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정해진 형식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맹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코 절도나 강도짓이나 간음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았다고 맹세한 뒤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플리니 2세 총독은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발된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소송을 제기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그 이름만으로도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름과 함께 그들이 행하는 범법 행위들(성찬을 오해하여 식인 풍습과 근친상간에 대한 소문을 두고 하는 말임)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심문하는 자리에 한 번도 배석해 보거나 그들을 직접 심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을 심문한 방법을 적은 다음 트라얀 황제에게 자기가 한 일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즉, 플리니 2세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오면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한 다음 두세 번 더 그리스도인이나고 묻는다.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 즉각 데려다 처형했다. 그중 자진해서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황제의 신상에 향을 바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기독교에 속했었던 사실을 일체 부인하거나 기독교와는 아무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곧 방면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절대 이렇게 하려 들지 않았다. 총독인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몹시 귀찮기도 했지만 내심으로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트라얀 황제는 플리니 2세에게 보낸 답신에서 일을 아주 잘 처리하고 있다고 치하한 다음,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데 어떤 일정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색출하려 들지도 말고 그들에 대해 익명의 고발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말라고 명했다. 만일 고발당한 사람들이 유죄임이 드러나면 처벌하되,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면 방면하라고 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별히 반대하는 법은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사형죄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비두니아와 본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이 수리아에까지 번졌다. 그곳에서는 안디옥의 연로한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핍박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안디옥의 지도자로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는데, 그때 마침 트라얀 황제가 안디옥에 와 있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황제 앞으로 불러 나가 심문을 받았다. 황제는 이그나티우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불경스러운 영에 사로잡혀 우리의 명을 악착같이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마저 똑같은 일을 행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박혔다는 그 사람 말이나?”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죠.”

황제는 심문을 끝낸 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이그나티우스를 쇠사슬에 묶어 로마로 데려다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안겨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렸다.

이그나티우스는 쇠사슬에 묶여 다른 두 죄수와 함께 군인 열 명의 호송을 받으며 로마로 압송되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까지 당시의 연안 뱃길을 따라갔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였고 서머나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도로아와 빌립보 근방 네압볼리를 향해 떠났다.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에 오래 머무는 동안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의 감독들이 공동체의 대표단과 함께 그를 방문하였을 때, 이그나티우스는 그들 각각의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한 안디옥에서 직접 로마로 가는 사절편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의 순교를 가로막지 말라고 미리 부탁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 드로아에서 필라델피아, 서마나 교회, 서머나 감독 폴리캅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후대에 감사했고, 그사이에 박해가 끝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거나 서신을 보내 줄 것을 부탁했다.

안디옥에서 체포된 이그나티우스가 왜 직접 로마로 압송되지 않고 이처럼 우회하는 경로로 압송되었는지에 대해 의도를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압송 경로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그나티우스의 당초의 순교에 대한 갈망이 식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마음이 연약해져, 결국 살길을 찾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잃게 되고 이것은 교회의 자연스러운 몰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둘째는 이그나티우스를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니는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그나티우스의 무기력함에 그들도 신앙에 회의를 갖게 될 것을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동안, 그를 살리려고 노력한 로마교회 지도자들의 구명운동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두려워하여 죽음에서 도피할 때에 교회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염려하였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의 제자 도는 순교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로마로 호송되는 동안 호위병들은 이그나티우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긴 했지만 아주 거칠게 다루어, 자신을 “후하게 대접하면 점점 더 다루기 어려워지는 열 마리 표범에 묶여 있는 신세”라고 표현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시리아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사나운 맹수들의 밥이 되었다. 그는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아시아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면함으로써 온 도시의 교회들에게 확신과 힘을 주었다고 한다. 서머나(Smyrna)에 도착한 그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하기를 자신을 구출함으로써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동경하는 귀한 것, 즉 순교의 면류관을 그에게서 박탈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서신을 씁니다. 저는 모든 분에게 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입니다. 저에게 ‘때에 맞지 않는 친절’을 베풀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고통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밀이며, 맹수들의 사나운 이에 갈기갈기 찢겨 그리스도의 순결한 빵으로 될 것입니다. 맹수들을 통해 저의 몸이 하나도 남지 않아 무덤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서 제가 깊은 잠에 들 때, 어떠한 사람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세상이 더는 저의 몸을 조금도 볼 수 없을 때, 비로소 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맹수들의 도움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나 바울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도이시며 저는 하나의 희생 제물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은 자유한 분들이셨지만, 저는 아직도 종된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이 고난을 감당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자가 될 것이며, 그분 안에서 자유한 자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결박 속에서 모

든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Ignatius to the Romans 4. 1~3).“

이그나티우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당했으며 뜨겁게 달궈진 집게로 그 몸이 갈가리 찢겼다고 한다. 그런 다음 마침내 사자들을 풀어놓아 순식간에 뼈만 남기고 다 집어삼키게 했다고 한다. 안디옥에 그의 묘지를 마련해 두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의 뼈를 주워 모아 묻었다. 그의 순교일은 일반적으로 AD 107~110년 사이의 어느 해 12월 19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캅, 오리겐, 유세비우스가 확실히 증언하듯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하였다. 유세비우스는 이그나티우스가 트라얀 황제의 통치 기간(AD 98~117년)에 안디옥에서 일어난 국부적인 박해 때문에 107~110년경 순교하였다는 것이 오랫동안 확실한 연도로 인정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는 이 해석에 의심을 품어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시기와 사망한 시기를 다소 모호하게 105~135년경으로 추정한다. 그가 재판에 응한 이유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논쟁이나 황제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대역죄 때문일 것으로 본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형선고가 결코 번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로마 공동체의 어떤 도움도 완곡히 사양하였던 것 같다. 결국, 그의 순교한 해를 정확히 결정짓기는 어려우나 폴리캅, 이레니우스, 유세비우스, 제롬을 비롯한 현대 학자 프렌드(Frend)의 주장대로 대략 107~108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교회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피의 제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20

강석찬 목사(서울노회 원로목사)

1.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을 정직하게 보자.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여기어도 쉽지 않은데, '바른'이라는 제한적인 단어가 붙으면, '바르다'는 것이 주는 물음 때문에, 동시에 '그르다'는 잣대 위에 서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여간 어려운 걸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나선 걸음이니, 이왕이면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회개하라”가 첫소리입니다(막 1:15).

빈들의 소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마 3:2) 소리쳤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첫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던가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라” 소리치는 입을 틀어막았죠. 만약 2,000년 전의 복음 시작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다면, 사실 이렇게 받아야 올바른 성경 읽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라”는 외침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회개하라고? 웃기네!” 하지 않을까요? 또는 자신을 빼고,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로 듣지를 않고 누군가가 회개해야 할 텐데 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죄인이니, 회개해야지”하지만,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뼈를 깎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뼈아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신 있게 큰소리칠 수 있을까

요? 한때 ‘기장 교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타 교단들의 비윤리적이고, 비복음적인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도 어둠의 독아(毒牙)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 한신대학교, 교단 소속기관들, 노회, 교회들에서 터지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뉴스가 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개인 한 사람만의 일탈로 치부하고 팔짱을 끼고 모르쇠로 고개를 돌려 피할 사건들이 아닙니다. 한 신앙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가 모두 함께 짊어지고 풀어야 할 신앙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런 창피한 일들이 거룩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2. 어떤 하나님을 만났나요?

신앙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이해에 따라 그 행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창조질서를 보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등의 하나님 등등, 정말 다양하고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성경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형태도 다양하게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고백하는 하나님은 온전한데, 고백 후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부추기는데 하나님이 동원되고, 교회 생활 잘해야 심판받아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받아 영생한다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해방과 자유, 인권을 주장하며 불의한 정권과 격렬하게 대결하여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여 권력을 쥐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경제적 부요를 누리는 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탄원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모셔 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행태가 ‘바른 것이냐?’ 하는 물음 앞에 설 때입니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다고 외치며 투쟁만 하면, 뒷자리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불의한 짓을 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평등을 소리 높이며 가난한 자를 위하기만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탐욕으로 뱃속이 더러워져도 괜찮다고 용납하시며 눈감아주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실까요? 고백하는 것과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3.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 헌제 사건을 보시죠(창 22:1-18).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창 22:1)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창 22:2)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황급히 천사가 동원되고,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는지 어떤지는 무심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창 22:12) 하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창 22:16)하며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흠족히 여긴 것이죠. 피의 제사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 숫양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으로 사건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피는 대지를 적셨을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숫양이 이삭을 대신하긴 했지만, 피의 제사가 드러졌습니까. 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어린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믿음의 근간(根幹)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 표적이 된 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출 12:13-14) 어린 양의 희생은 모든 것의 만이를 대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만아들만이 아니라, 가축들의 초태생, 처음 익은 열매, 첫 추수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다. 왜 하나님은 처음 것을 ‘내 것’이라 하십니까요? 왜 처음 것 받으시길 기뻐하십니까요? 첫 태생의 의미는 생명을 잇는 처음 것입니다. 곧 모든 존재의 전부를 ‘내 것’이라 하시는 것이죠. 존재의 전부를 바치는 상징이 피 속에 담겨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에 자세하게 방법이 기록되었는데,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뿌리고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레 4:35) 했습니다. 이 역시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증언합니다.

4. 피의 제물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랐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것은, 유월절 희생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사야의 예언인 ‘고난받는 종’으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사 53:47)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향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17:4)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피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죠.

이 일을 히브리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6)라고 했습니다. 피의 제물이 된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아사셀 염소가 되어 고난을 받았습니다(히 13:12).

5. 순교의 피로 세워지고 자라는 교회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1:23-25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

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피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피의 제물이 되어 몸과 피를 나누어주어 죄인들의 생명이 되어 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나도 것처럼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후, 성만찬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핏박의 파도는 새싹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스테반이 사울 앞에서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았죠. 흩어진 성도들이 들불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몸이 섰습니다. 다시 시련의 폭풍우가 불어치고, 순교의 피가 땅 위에 뿌려졌습니다. 폭풍우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마른 땅에 빠지지 않도록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피의 제사가 반복하여 드려지는 동안,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파하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한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부흥, 교회 성장,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뽕 잡는 것이 매”식으로 매진해 왔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던가요? 알곡이었나요? 쭉정이었나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복’에 매달려 살도록 기만했던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나열하려면 밤을 새우며 소설 100권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왜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순교신앙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하라”는 복음의 첫 외침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순교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6.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교회

그러면 순교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계 2:10) 하셨으니, 목숨을 끊어 “죽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되겠지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순교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a).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겠다고 나선 성도들, 성직자라면,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는 방법대로 사는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과 같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흠 없는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악의 유혹이요 어둠의 속삭임인 거짓과 기만과 속임과 탐욕 등 어둠에 속한 것들과 손잡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속사람이 지르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단을 볼 때도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분노도 생깁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걱정만 하고, 화만 낸다고 잘못된 교회가 바뀌던가요?

196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펄 벅 여사가 명동에 있는 청동다방에 들렸습니다. 이 다방에는 공초(空超) 오상순 시인이 마련해 둔 사인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펄 벅이 남긴 글입니다.

“어둠을 불평하기보다는
단 한 자루의 촛불이라도
밝히는 것이 낫다.”

어둠을 보고 나의 촛불 하나를 켜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만사의 성사(成事)에는 희생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데 부모의 희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학자가 배출되는데 스승의 헌신적인 가르침이 따릅니다. 나라를 국난에서 지키는데 순국의 희생이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하는 데에도 수많은 희생의 붉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를 지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에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의 가장의 발품, 노력이라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길에 순교신앙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순교신앙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피의 제사’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이 피의 제사를 지냈던 때는, 오히려 교회는 평화롭고 평안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니다. 성도들은 비록 고난의 태풍 속에 있었지만, 확고부동한 소망과 믿음으로 신앙은 더욱 단단했고, 성결(聖潔)했으며 경건했고 맑았습니다. 분명하게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련도 없고, 탄압도 없는 오늘날에는 타락한 교회, 교인들, 직분자들, 성직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죠. 순교신앙이 상실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보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가짜 믿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국교회의 희생은 피의 제사 회복에 달려있습니다. 순교신앙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 한 자루의 촛불’이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 한국교회 순교신학 정립을 위한 시론¹⁾

최상도 목사(호남신학대학교 역사신학)

1. 순교: 그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순교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절정으로 묘사되고, 그 공동체가 따라야 하는 모델로 제시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로의 동참”²⁾을 통한 그리스도를 본받음(*imitatio Christi*)은 초기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본질이다. 「폴리카프의 순교」에는 이점이 분명히 나타난다.³⁾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역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서신(Letter to the Romans)’에서 순교의 이러한 ‘본받음’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⁴⁾ 이그나티우스는 예수의 죽음을 본받은 순교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⁵⁾ 특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고난을 본받는 것을 “순교자의 법”으로 여겼다.⁶⁾

그렇다면 정확히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받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어에서 ‘본받음’의 개념은 주인의 특별한 행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⁷⁾ 화이트(R. E. O. White)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도덕적 절대성에

1) 본 글은 저자의 “한국교회 순교신학 정립을 위한 순교담론 연구”, 「신학과 목회」 40(2013), 133-161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2) Paul Middleton, *Radical Martyrdom and Cosmic Conflict in Early Christianity* (London, New York: T&T Clark, 2006), 88.

3)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17.3.

4) Ignatius, *Letter to the Romans* 1.2, 5.3.

5) Jules Lebreton, *Historie du dogme de la Trinité, des origines au concile de Nicée*, vol. 2, 1910, Reprint, (Paris: G. Beauchesne, 1928), 232 (English Translation of vol. 1, *History of the Dogma of the Trinity From Its Origins to the Council of Nicaea* (London: Burns, Oates, and Wabourne, 1939)). Larry W. Hurtado, *Lord Jesus Christ: Devotion to Jesus in Earliest Christianity* (Grand Rapids and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3), 623에서 재인용.

6) Hurtado, *Lord Jesus Christ*, 623.

7) Richard A. Burridge, *Imitating Jesus: An Inclusive Approach to New Testament Ethics* (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7), 145.

가장 가까운 기독교 원리이며, 그것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⁸⁾ 따라서 ‘제자와 본받는 자’로서 순교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본받고자 한 것은 그들이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가 행한 말과 행위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 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대속 죽음(마20:28, 막10:45, 롬8:32, 고전15:3, 딤후2:6)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갈등 속에 있는 인간들 간의 화해의 성취(고후5:11-21, 엡2:14-16, 고전12:24-26)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예수의 사역은 억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해방 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눅4:18-19, 사61:1-3). 비록 십자가 사건과 1세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해석 사이에 시공간적 간극이 존재하나,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과 해방, 용서의 선포, 그리고 화해의 성취는 순교자들이 본받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러한 해석들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여전히 로마제국의 기소(起訴)와 박해(迫害)의 위험 가운데 있었던 때에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제국의 폭력적 박해에 대해 지상에서의 ‘복수’가 아닌, 타자를 위한 죽음(대속적 죽음), 화해, 그리고 해방의 십자가 영성을 명백히 선포했다.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중의 증오와 잔혹한 박해를 극복하기 위한 무기는 물리적 폭력을 상징하는 ‘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히 보여준 아가페 사랑 곧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자기희생적 사랑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곧 영생이라는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의 이 삶과 죽음의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의 핵심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명백히 실현되고 선포되었다(고후 4:10~12). 초기 순교자들이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죽음의 역설 가운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타자를 구하고 억압된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갈등과 투쟁 속의 인간들 간의 화해를 성취하고자 한 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2. 순교: ‘타자의 해방을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의 그리스도를 본받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타자를 위한 구속적 자기희생으로 해석해 내므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순교자들을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는 자로 묘사 했다. 「폴리캅의 순교」 저자는 “복된 폴리캅”의 그리스도 고백과 공적 그리스도인 됨의 선포로 초래된 그의 죽음은, “복음을 따라서”⁹⁾ 예수를 본받아 “그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또한 모든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진실하고 견고한 사랑의 표지”¹⁰⁾라

8) R. E. O. White, *Biblical Ethics* (Leominster: Gracewing Publishing, 1994), 109.

9)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1.1.

설명한다. 저자에 따르면, 순교자의 표본적 죽음으로 타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폴리갑은 그의 순교로 “박해를 종식” 시켰으며,¹¹⁾ 리용의 베티우스 에파가 타우스(Vettius Epagathus in Lyons)는 “무신론 혹은 불경으로부터 결백” 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므로 순교했다.¹²⁾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예수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요 18:8)고 요청한다. 자신이 희생하므로 그를 따르는 무리는 살리려는 장면이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적 죽음을 ‘아담-그리스도’ 유형론을 사용하여 예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모범적인 죽음은 단순히 그 자신의 세상 생명의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타자에게 주어 질 새 생명의 초석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이 타자들을 구속하여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인도 한 것처럼, 순교자의 본인의 죽음은 타자의 생명의 시작이 된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자기 사랑을 입증하는 것(롬 5:8)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본받은 순교자의 죽음은 박해를 봉인 혹은 종식시키고 어떠한 종류의 억압이든지 그 억압 아래 있는 타자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된다.¹³⁾

3. 순교: ‘용서와 화해’의 그리스도를 본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자발적 수용은 바울에 의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그리고 갈등과 억압 중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행해진 하나님의 화해로 풀이되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교는 하나님과 세상 간에,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룩하는 행위이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순교 기록에 따르면, 순교자들은 “비상한 인내”¹⁴⁾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가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마 26:53)를 하나님께 요청하여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물리적 복수를 실행하기보다 그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한 행위를 본받아, 저항하거나 저주하며 복수하기보다 의연히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 직면한 죽음의 고통에 반응 없이 평온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를 목격하던 군중들 사이에는 여전히 증오 섞인 경멸이 가득했지

10)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1.2.

11)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1.1.

12) *The Martyrs of Lyons* 1.10.

13)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1.1을 다시 보라.

14) *The Martyrdom of Saints Carpus, Papylus, and Agathonice*, 36.

만, 그 가운데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하며,¹⁵⁾ 숨졌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도 하며,¹⁶⁾ 나아가 회심자가 생겨나기도 하였다.¹⁷⁾

폭력은 언제나 또 다른 폭력을 생산하고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므로, 폭력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이룩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폭력에 의한 죽음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순교자의 죽음은 바로 이 순환하는 폭력의 연속성을 끊고 화해의 초석을 놓는 행위가 된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적 죽음 앞에서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므로, 순교자들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화해의 직분자(고후 5:18)가 된다.

초기 콘스탄티누스 이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형성된 억압된 타인의 해방을 향한 자기희생적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죽음, 폭력적인 대적자를 향한 용서의 선포와 그로 인한 화해 성취의 신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교신학이며 순교 영성이다. 비록 순교 담론이, 특정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여 특정 시대 특정 공동체/그룹이 의도한 해석에 따라 형성되고 규명된다 할지라도, 아직 소수 공동체로서 국가의 공인을 얻지 못한 원형적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순교담론의 의도는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 최후의 승리에 동참하는 ‘신앙 고백과 복음 선포’인 것은 분명하다.

4. 순교 담론의 왜곡: ‘죽음’(Dying)에서 ‘죽임’(Killing)으로

교회가 로마제국에서 인정되기 이전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제국의 통치자와 로마시민으로부터 언제나 기소(起訴) 혹은 박해(迫害)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이들 공동체는 ‘다양성’(Diversity), ‘소수성’(Minority), ‘약함’(Powerlessness)의 특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을 지켜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순교개념은 폭력적인 박해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ng Christ)’ 굳건한 신앙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백하고 선포한 행위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다. 실로 순교는 ‘하나님을 위한 죽음(Dying for God)’의 행위이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1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제국종교(Christendom)가 되어 교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순교의 개념에는 ‘하나님을 위한 살해(Killing for God)’

15) *The Martyrdom of St. Polycarp* 7.3, 12.1, 16.1; *The Martyrdom of Saints Carpus, Papyrus, and Agathonice* 45; *The Martyrdom of the Saintly and Blessed Apostle Apollonius, also called Sakkeas* 44-45.

16) *The Martyrdom of Potamiaena and Basilides* 5-6.

17) Eusebius, *Ecclesiastical History* 6.41.16-17. Candida R. Moss, *The Other Christs: Imitating Jesus in Ancient Christian Ideologies of Martyrdom*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39 (note 129)에서 재인용.

의 요소가 포함되기 시작한다.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된 후 교회는 초기의 특성을 버리고 ‘획일성’(Unification), ‘다수성’(Majority), ‘강함’(Powerfulness)으로 무장하게 되었다.¹⁸⁾ 이후 순교개념은 국가 권력의 비호아래 교권(ecclesiastical authority)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소위 말해 로마제국이 인정한 ‘정통 기독교(orthodox Christianity)’ 밖의 다양한 신앙과 신념들을 교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종교적 폭력까지 승인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포함되었다.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한 죽음으로서의 순교 즉, 하나님을 위한 죽음(Dying for God)은, 교회정통성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 정통교회 밖의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Killing for God)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 하자면, 순교개념이 초기에 ‘하나님을 위한 죽음 당함(killed)’이라는 의미에서 기독교가 로마제국종교로 자리매김한 이후에 국가 권력을 바탕으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과의 갈등과 투쟁 가운데 발생한 죽음, 곧 교회 밖 사람들을 ‘죽이는(killing)’ 행위 가운데 발생한 죽음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순교의미의 패러다임 변형은 교회역사를 통해 분명하고도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특히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 그리고 서구열강이 주도한 19세기 제국주의적 선교 사업에서 잘 드러난다.

순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폭력 가운데서 죽음을 수용한 행위라면, 하나님을 위한 살해 즉 자신의 신앙을 위해 자신과 다른 신앙을 지닌 사람들을 물리적 폭력으로 살해하는 행위까지 순교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본받는 행위로서의 순교의미가 명백히 변질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폭력적인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물리적 저항 없이 그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비록 초기 순교 기록에 순교자들이 종말론적 우주 전쟁에서 “신실함과 인내”로 무장하여 궁극적인 그리스도 승리에로의 참여를 기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묘사되기도 하지만,¹⁹⁾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전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순교자 추서(追敍) 있어서, 그들은 대적자를 향해 어떤 물리적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는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오히려 첫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폭력적 기소와 박해의 상황에서 “비상한 인내”²⁰⁾로 “기쁨과 평화와 조화”²¹⁾ 가운데서 자신들이

18) 초기교회의 특성과 제국종교가 된 이후 교회의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는 졸고, “Love Your Enemie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0/4 (2018.11), 161-180을 참고.

19) Paul Middleton, *Radical Martyrdom and Cosmic Conflict in Early Christianity* (London. New York: T&T Clark, 2006), 79-93 (인용은 87쪽).

20) *The Martyrdom of Saints Carpus, Papyrus, and Agathonice* 36.

21) *The Martyrs of Lyons* 2.7-8.

직면한 죽음을 받아들였다.

첫 3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들이 본받아야 할 “원형적 순교”로 삼았다. 즉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승리”로서, 자신을 “모욕하고 처형하고 변절하고 혹은 그를 저버린” 자들을 향해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포하므로 폭력을 봉인하고 중지시킨 그의 자발적 죽음 수용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박해로 죽임당한 동료 신자들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성취한 순교로 해석해 냈다.

순교 담론이 본질적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가운데 발생한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사회적 혹은 문화적 기억을 바탕으로 그것을 순교로 호명하고자 하는 현재 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목적, 의도에 따른 기념적 해석행위의 산물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콘스탄티누스 이전 시대의 순교 담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신앙에 대한 증거로서 충실하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순교는 “어떤 행위를 위한 하나의 전략(strategy)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testimony)”²³⁾라고 지적인 공공신학자 오도노반(Oliver O'Donovan)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5. 손양원 목사: 그리스도를 본받은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 용서, 화해의 순교자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을 기억함에 있어 우리는 최소한 세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첫째, ‘신사참배 거부와 옥고’, 둘째, ‘두 아들의 죽음과 그 가해자를 양자 삼음’, 그리고 셋째, ‘공산군에 의한 죽음’이다. 한센 환우들과의 삶은 손양원의 인생 전체의 큰 밑그림으로 존재한다. 이를 ‘기독교적 사랑의 표현’과 ‘기독교적 신념(정절)의 표현’으로 정리하기도 한다.²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에 대한 신념의 ‘실천’이 손양원을 ‘사랑의 성자’로, 그리고 ‘순교자’로 기억하게 만든다.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손양원의 삶과 죽음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본받음’의 모습이었고 실천이었다고 인정한다. 즉 손양원의 삶은 타자를 위한 자기희생적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순교적 삶을 살다 순교한 ‘순교의 인생’인 셈이다.

때때로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한 손양원을 ‘민족주의자’라 평가하고, 공산군의 손에 처형당하여 순교했으므로 ‘반공주의자’라고 말한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기독교의 현실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실로 35년간

22) Duncan B. Forrester, *Apocalypse Now? Reflections on Faith in a Time of Terror*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td., 2005), 82.

23) Oliver O'Donovan, *The Just War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0 (강조는 필자의 것).

24) 차종순, 『애양원과 손양원 목사』(광주: 여수 애양원 성산교회, 2005), 32.

나라를 잃고 일제의 식민통치를 경험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식민통치에 저항하고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고 이룩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민족주의자’라는 호칭을 주는 것은 최고의 칭찬이자 자랑이다. 더불어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상황에서 동족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통해 북한군의 잔혹한 살상을 경험한 남한의 국민들에게 ‘반공주의자’는 자연스럽고 내세울 만한 칭호이다. 따라서 일제 식민시대 고난을 겪고 한국전쟁 중에 사망한 손양원을 ‘민족주의 반공주의’ 순교자라는 칭호는 이상할 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이데올로기적 평가가 손양원의 순교적 삶과 죽음을 충분히 해석하여 평가한 것일까?

일반학계에서는 특히 전쟁 기간에 발생한 희생자에 대한 기독교계의 순교자 추서와 순교 담론에 대해서 “개신교 반공주의 재생산 기제”²⁵⁾ 혹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공고화하는 역할”²⁶⁾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순교 담론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교가 가장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정치적 개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에 따른 죽음, 따라서 ‘그리스도 본받음’의 표현 양식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데올로기로도 순교의 개념을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손양원 역시 그의 설교에서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고 선포한다.

오늘 조선 교회의 현상은 여하합니까? (1)율법 신앙으로 떨어진 자, (2) 인본 중심 사상, (3) 불교 사상·인과보응, (4) 신신학(新神學), (5)유물주의 사상 (6) 민족주의 사상이 팽배합니다. 조선 교회를 재건하려면 먼저 파괴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중생해야 합니다…모든 사상과 주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깨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기십시오. 순전한 기독교자가 되십시오. 율법주의, 인본주의, 인과 사상, 민족 사상, 신신학, 유물주의를 다 버리십시오. 이 모든 사상을 다 사로잡으십시오. 사로잡는다는 것은 원자폭탄과 같습니다. 이 모든 사상을 십자가로 사로잡으십시오. 율법 속에는 도덕법, 국법, 종교법이 있지만,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했으니 십자가 아래만 복종하십시오.²⁷⁾

순교의 ‘죽음의 사건’은 죽이고자 하는 폭력적 힘과 죽고자 하는 힘(의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하므로, 순교 현장에는 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박해하는 사자”로서 가해자와 “박해 받는 양”²⁸⁾으로서

25)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7), 183.

26)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순교비의 사회·종교적 역할”, 김경학 외, 『전쟁과 기억: 마을공동체의 생애사』(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5), 229.

27) 1947년 5월 25일 주일설교, 고린도후서 10장 1-6절: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KIATS 엮음, 『한국기독교지도자 강단설교: 손양원』, 71, 73에서 인용.

피해자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보복과 응징을 반복했다. 손양원의 삶 가운데 발생했던 일제시대와 해방의 상황, 여순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의 상황에는 더욱 그러했다. 손동희의 고백대로 ‘사랑 없어 기근인 사회’, ‘복수만이 최대의 승리’로 인식된 상황이었다. 그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인 순교자 가족 간에는 늘 증오와 불신이 남았다. 그리하여 순교자기념은 반일, 반공의 형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편협한 민족주의와 반공주의 재생산 기제로 순교담론이 이용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자기희생적 사랑과 그로 인한 타자의 구원, 그리고 가해자의 용서와 이를 통한 화해의 실현의 의미로 해석해 내었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용서, 화해’를 박해 중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 적용하고 실현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죽음의 현상이 순교이다. 이 전통에 따라 실제로 손양원의 순교가 보여준 모습은 모든 증오와 반목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애양원 환우들을 살리고, 두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양자로 삼아 용서를 실천하고 이를 통한 화해의 성취였다. 이것이 예수 중독자 손양원 목사의 순교의미이다. 따라서 순교신학은 저항을 넘어서 자기희생적 사랑의 신학, 용서의 신학, 화해의 신학이다.

여전히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또 남북으로 분단되어 극한 이데올로기 갈등과 이에 따른 증오와 불신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때에, 손양원은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의 국가가 오게 하는 방법, 즉 십자가의 사랑이라야 됩니다”라며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희생하고, 용서를 선포하며, 화해를 이루는 신앙의 ‘실천자’가 되기를 권고한다.

6. 자기희생적 사랑과 용서로 화해를 만드는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모습을 본받아 내 자신을 이웃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 세속화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삶을 이어가야 한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은 “죽음에 이르는 증인” 곧 타자의 생존과 인권, 사회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자기희생적 사랑의 실천자이다. 또한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생명이 유린당하는 이웃을 위해 그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저항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저항은 화해의 초석을 마련하는 비폭력이어야 한다.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인 오스카 로메로는 말한다: “나는 지금 엘살바도르의 부활과 정의를 위해 내 피(생명)를 하나님께 드

28) H. A. Drake, “Lambs into Lions: Explaining Early Christian Intolerance”, *Past and Present* 153 (November 1996), 3-36.

린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희생을 받아주신다면, 나는 내 피가 자유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²⁹⁾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검’이 아니라 생명까지 내놓는 ‘자기희생적 사랑’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무수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반목, 보복과 폭력의 재생산을 단절시키고, 신실한 화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1978년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인도 방갈로 보고서 《죽음에 이르는 증언 Witness unto Death》에서 천명한 것과 같이, 진실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기본, 희망의 원천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보기로 삼도록 우리를 독려한다”³⁰⁾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³¹⁾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29) Plácido Erdozain, *Archbishop Romero: Martyrs of Salvador*, John McFadden and Ruth Warner trans.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1), 75; James Brockman, *Romero: A Life*,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9), 248.

30) WCC,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Sharing in One Hope: Reports and Documents from the Meeting of the Faith and Order Commission, 15-30 August 1978, Ecumenical Christian Centre, Bangalore, India, Faith and Order Paper No. 92*. (Geneva: WCC,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 1978), 200. 인용은 Rowan D. Crews Jr., “순교 Martyrdom”, 에큐메니칼 선교훈련원 (역),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사전I』(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2), 829.

31) 김영희 (편역),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 순교록』(서울: 익투스, 2010)의 제목을 따왔다.

순교자의 교회

위르겐 몰트만 교수(튀빙겐대학)

1. 순교의 어제와 오늘

「순교자의 교회」(Ekklesia Martyrium)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러 예부터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참 증인”(계 3:14)이요, “신실한 증인”(계 1:5)이신 주님과 맺은 운명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칭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계 1:2)에 동참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의 증언이며, 이 증언의 사건이 바로 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케 된 계기입니다. 생사를 걸고 증언을 해온 순교자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추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자들을 추모한다고 해서 순교자의 제단을 쌓아 경외하는 것은 분명히 종교적인 이탈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자를 경멸하거나 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세속화된 민간종교로 격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망각하는 결과를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누가 순교를 했고 또 신실한 증인들이 당한 순교를 신학적으로 파악하기가 쉬웠습니다. 금세기에는 순교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는 있어도 그들의 순교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몰라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순교의 상황이 초대교회의 경우와 다른 때문입니다. 오늘날엔 국가 권력이나 폭력단체들과의 투쟁 속에서 수많은 증언자가 죽어갑니다만, 이들을 정작 순교자로 불러야 할지 몰려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순교자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방 세력의 지배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생긴 희생을 가리켜 “초대교회는 순교”라고 이해했습니다(E.Peterson, Zeuge der Wahrheit, in : Theologische Traktate, München 1951, 165~224면). 그리스도의 경우처럼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달갑게 죽어간 이들을 순교자로 칭하고 존경했습니다. 법정에 세워 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결과는 공개처형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파는 이런 식으로 겹주어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순교자는 이리하여 공개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백발의 순교자 폴리카프(Polykarp) 감독이 그랬고 안디옥

감독인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그랬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인이란 주님을 “위해서”(für) 일하는 병정이지만, 주님과 “함께”(mit) 죽고, 세상과 화해하시고 세상을 일으키시는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교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 몸에 채운다”(골 1:14)는 의미의 순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덮친 고난을 골고다에서 대신 속죄의 제물로 바친 종말적 고난을 순교자들이 이어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중세기”에 들어와서는 순교의 의미가 약간 확대하여 해석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von Aquin)의 말이 이를 입증합니다. “믿음만이 고난받는 자들에게 순교의 영광을 부여해준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선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순교자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자를 뜻합니다.

초대중세 교회의 순교관과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순교자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현격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오늘날의 순교자는 죽도록 고문을 당하고는 어디론가 “종적조차” 없어져 버립니다. 살해된 장소도, 신원도 부지불명입니다. 도무지 공개되지 않는 순교의 모습입니다.

(2) 오늘날에도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기 위해 스스로 일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도 기꺼이 의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받은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대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고난은 소극적 고난(passives leiden)이 아니라 행동하는 고난(aktives leiden)입니다.

(3)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들어서는 믿음을 고백한 때문에 당하는 순교가 쇠퇴하는 대신 “말과 행실을 겸비한 순종하는 믿음”과 “정치적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순교의 모습이 크게 등장합니다.

(4)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방 종교나 무신론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 국가”란 곳에서 벌어지는 기독교인 핍박의 모습은 처절합니다. 지난 십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850명의 가톨릭 신부들이 살해를 당한 정도니까 평신도 가운데 희생자가 얼마나 되리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살해한 장본인들 스스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자처한다는데 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5) 초대 기독교의 순교는 “익명의 순교”요, “전체집단”, 민족, 인종 등등이 몽땅 당하는 순교입니다. 로메로(Romero) 주교가 제단에서 미사를 집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깊이 존경하며 기립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 때 똑같은 살해범들에 의해 또 40명의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익명의 처참한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제 순교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위해 세 순교자의 경우를 각기 살펴보겠습니다. 1) 포로수용소의 설교자로 불리던 파울슈나이더(Paul Schneider) 2) 저항의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 이 두 분은 소위 히틀러 치하에서 고백 교회 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3) 고난받는 민중의 비숍이라 일컬어지던 엘살바도르의 로메로(Arnulfo Romero) 주교의 경우입니다.

II. 현대의 순교자 세 분

1. 슈나이더(1895-1939): 이분은 서독 라인란드 주교회 소속 개혁파 목사였습니다(이분의 전기로는 M. Schneider(편), Der Prediger von Buchenwald, Das Martyrium Paul Schneiders, Stuttgart 1881이 있음).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목회자요 엄격한 개혁교회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칼빈은 “교회법은 교회를 매는 끈이요, 이 끈을 자르면 몸 전체가 힘없이 축나고 만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슈나이더 목사 역시 칼빈의 착실한 학도로 성례전을 집행할 때마다 참석자를 엄격히 처리하고 골라 세우곤 했습니다. 혼전 임신이나 혼전에 이미 아이를 가진 부부는 교회에서의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엄격한 원칙을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여 대도시의 문란한 생활이며 현대 문명의 이탈된 모습이 교회 내부에 스며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곤 했습니다. 1934,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이듬해부터 목회자로서 국가 권력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히틀러 청년동맹의 한 소속 회원이 사고로 죽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슈나이더가 장례식 설교 마치고 나자 참석했던 군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묘 속에 넣은 시체를 다시 빼내어 청년동맹 전용 “지성소 묘지”에 다시 안장했습니다. 슈나이더는 그러자 분연히 일어나 “이것은 교회주관의 장례식이요. 히틀러 지정 지정소 묘지란 무슨 똥판지요!”하고 항의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계에 히틀러지지 세력인 “독일 기독교단”(Deutsche Christen)이 득세하자 슈나이더는 교회법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들과 대항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히틀러의 민족국가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백성을 현혹”한다는 죄목으로 라인란드 주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슈나이더는 1939년 부인과 함께 섬기던 교회로 돌아와 감사절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안수받고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아무리 나치의 명령으로 추방

당했더라도 이를 거역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비밀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던 중 추방 명령을 인정한다는 자필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곧 포로수용소 부헨발트(Buchenwald)로 이송되었습니다. 물론 추방 명령을 인정한다는 서명만 하면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목회자로서의 소신에 도무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1938년 4월부터 모든 수용수들은 아침마다 계양된 히틀러 휘장을 새긴 기에 경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슈나이더는 이를 “우상숭배”라 하여 거부했고, 그 결과 모진 처벌당한 후 사형수 집합소인 벙커로 끌려갔습니다. 사형수 감방 생활 중에도 틈만 있으면 창 쪽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의 용기를 가지라고 동료사형수들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 직속의 살해 단들을 직접 대고 훈시를 하곤 할 때마다 교도관들이 덮쳐 꼼짝 못 하게 입을 틀어막곤 했습니다.

13개월 동안이나 무지막지한 고난의 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이곳 수용소에서 나중에 용케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슈나이더 목사의 몸은 항상 피투성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1939년 9월 14일 살인용 혈청주사를 맞고 살해당했습니다. 여기서 부헨발트 수용소의 설교자 슈나이더의 순교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바가 있었습니다.

(1) 그는 신앙의 확신에 투철했고 그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앙의 확신이란 바로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라는 확증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을 잃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신앙의 확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2)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그는 교회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철두철미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교회법 없이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법적인 확신은 개인의 윤리 생활만이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까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는 순교를 수동적으로 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국가의 추방 명령을 거부했고, 국기경례를 거부했고, 죽음의 벙커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일종의 “행동하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당국과의 갈등이 생긴 것은 교회가 침범을 당하고 설교 임무가 방해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본회퍼(1906-1945): 그는 신학자 출신입니다(생애에 관해서는 E. Bethge, Dietrich Bonhoeffer. Theologie-Christ-Zeitgenosse. München 1980(4판) 참조). 1930년엔 이미 백림대학의 조직신학 담당 교수로 취임했습니다. 이미 일찍부터 국제적인 에큐메니칼 운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1931~32년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1933년엔 런던에서 외국인 목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30년대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평화운동에 깊이 감명받고 있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히틀러의 전체주의체제에 대항한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 운동에 결정적으로 생을 걸고 있었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에서도 그는 항상 과격파에 속했었고, 소위 1934년 고백교회가 발표한 “바르멘 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에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절이 빠져 있다 하여 분노를 터뜨렸으며 요시찰인물 제일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소리를 말하는 자만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다”고 예배 때마다 외쳤습니다. 그는 “고백교회”만이 “참된 교회”이며 참 교회와 거짓교회를 다리 놓으려고 소위 중간교회는 존재치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935년 “고백교회를 등지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등 돌리는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불법화된 핑겐발데(Finkenwalde)의 고백교회 신학교를 이끌어 갔습니다. 1939년 두 번째로 뉴욕에 갔다가 2차 대전이 시작되기 직전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귀국을 말리며 유니온 신학교에 붙잡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미 기다리고 있는 갈등 속의 조국이 바로 자신의 부름을 받은 일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고백교회”의 일을 계속함은 물론이지만 독일군 정보부대 내에 근무하던 카나리스 제독과 오스터 대령이 주도하는 군부대 비밀저항 결사부대와 협력하면서 이들의 외부와의 연락 관계를 술선 위임 맡고 있었습니다. 1943년 4월 3일 체포되기는 했으나, 비밀경찰은 그의 범죄 단서를 아직도 확증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직전, 그러니까 1945년 4월 9일 그는 카나리스 제독 및 오스터 대령과 함께 플로센뷔르조 포로수용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항의 신학자” 본회퍼에게서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는 독일의 독재체제와 싸우면서 “교회 중심적 저항”에서 “정치적 저항”으로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요? 국가가 교회를 직접 간섭하고 들어와야 비로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국가 권력이 부패·부정을 일삼고 비인간적인 소지를 보일 때부터 저항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공산주의자든 민주주의자든 모두 학살을 당하고,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할 때 교회는 저항해야 합니다. 본회퍼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고백 때문만으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신앙의 복종행위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슈나이더의 순교가 “기독교적-교회적” 순교임에 반해서 본회퍼의 순교는 “기독교적-정치적” 순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는 자기의 저항하는 힘의 원천을 가리켜 “영적인 수련”(Arkan- disziplin)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내면 깊은 곳에 흐르는 영적 생활, 기도, 묵상, 성령의 임재

를 체험하는 일을 총칭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영적수련”과 “진정한 세속성”은 상호 간에 보충하며, 강건하게 하며 서로 붙들어줍니다. “기도의 신비”가 없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불의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란 불가능하다. 그와 반대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의 실천적 정치적 저항이 없이는 기도의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3) 본회퍼 역시 핍박·고난·죽음을 수동적으로 당한 것은 아닙니다. 1939년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뉴욕에서 독일로 돌아왔으며, 분명히 “알면서” 정치적 저항운동에 몸을 던졌고, 분명히 “뜻을 세우고” 인간을 능멸하는 정권에 소위 “반역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종전 후에 독일 개신교가 “복음적 교회”(Evangelische Kirche)란 의미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슈나이더의 순교 정신을 반영하는 뜻에서였습니다. 본회퍼의 순교 정신을 따라 이름을 붙이자는 주장이 채택되지 않은 데에는 정치저항을 하다가 살해된 사람을 순교자 반열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경건파 교인들의 의구심과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이미 중세 때부터 “기독교적인 윤리행위”를 위해 죽어간 사람도 순교자로 지칭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면 신학적으로 의구심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의 경험이며 또 당시 히틀러 치하의 경험을 토대로 보아 “기독교적인 윤리 행위”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첨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부패한 국가 권력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입증됩니다.

3. 로메로 주교(1919-1999): 엘살바도의 “민중의 주교”라 불리는 로메로 주교는 1942년 신부 서품을 받고 1970년에 주교임명을 받았습니다(생애에 관해서는 O. A. Romero, Die Notwendige Revolution, Mainz/ München 1982). 1977년 수도 산살바돌 교구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엘살바돌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집권 군사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 세력이 기독교 민주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의 시위가 연일 발생했으나 국방경비대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2주간이 지난 3월 12일 엘살바돌에서는 처음으로 신부 한 분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길레라 교구 소속으로 교회갱신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던 루티오 그랑드(P. Rutilio Grande sj) 신부였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뛰어간 로메로 주교는 시신과 함께 밤새워 성당에서 지냈습니다. 이날 밤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왔노라”고 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59세가 된 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품 좋고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날 밤 이후로 생의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극소수 극우 지배층과 그들이 고용한 “살인 전문 집단”의 횡포에 교회와 민중이 공동운명체적인 수난을 받고 있음을 심각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민중 속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민중의 주교가 된 것입니다. “박해받는 것이 실제로는 교회가 아니고 민중이다. 한테 교회가 민중

편이고 민중이 교회 편이니까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쓴 소브리노(Ion Sobrino)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의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수많은 희생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얼굴에서 그는 일그러진 하느님의 얼굴을 보았다”고(전기 17면), 그는 실제로 가난한 민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랑하신다”(1142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메로 주교가 단순히 가난한 민중에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가난한 민중한테서 “전도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를 받은 그는 엘살바ドル의 대주교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의 대변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하여 산살바돌의 성당이 민중의 모임처가 되고, 예배하는 단식투쟁의 처소가 되고, 데모하다 부상입은 자들의 치료소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교인이며 민중의 장례식장이 되었습니다. 민중 속에 뿌리박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대화 상대는 국가 권력이 아닌 민중입니다. 그냥 민중이 아니라 민중 조직화를 로메로 주교는 시도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민중조직을 위해 헌신할 것을 동료 신부들에게 늘 권장하곤 했습니다. 그는 죽이겠다는 위협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실제 살해되기 2주 전부터 그는 닥쳐올 운명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을 수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 없는 죽음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죽여 없애버리겠지만 나는 엘살바ドル의 민중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나의 사랑하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희망을 증언하는 표정으로 기꺼이 죽음을 택하겠소”라고. 1980년 3월 24일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중에 청부살인범들에 의해 그는 실제로 사살당했습니다. 극우 과격파인 다르비송 휘하의 살인부대의 소행이었습니다.

로메로의 순교를 보면서 위에 설명한 두 유형의 순교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순교유형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으며 곧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경우입니다. 슈나이더 목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순교유형은 믿음에 순종하는 행위로 인해서 즉 핍박과 놀림을 당하는 자를 사랑하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함으로써 당하는 경우입니다. 본회퍼의 고난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순교유형으로 놀리고 희생당하는 민중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우로 로메로 주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교회의 경우 진실로 “민중의 교회”가 되면 함께 억압과 핍박을 받게 될 뿐입니다.

민중은 도대체 누굴 지칭하는 말입니까? 눌린 계층이라 할 때 칼 마르크스는 유

독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즉 “노동자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예수를 따라가며 늘린 계층을 말할 때 그것은 “민중”이요 신약성서가 말하는 “Ochlos”입니다. 여기서 “민중”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노동 불능의 남성들만이 아니라 똑같은 운명의 여성들도 포함하며, 성인만이 아닌 어린이도, 건한 자만이 아닌 병들고 병신 된 자 모두, 그러니까 혁명이라고는 일으킬 힘조차 없는 약자들 모두, 즉 “가난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중개념은 마르크스식의 “계급개념”이 아니라 “상호관계의 개념”입니다. 굳어진 인간 족속을 바탕 한 개념이 아니고 메시아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민중은 인종의 구별 차원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뿌리가 민중에 있고 민중교회(바닥교회)로 조직화 됩니다. 이 민중교회에서야 비로소 말을 잃은 민중이 말을 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지배자의 대상이 아닌 자기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중을 위한” 지배자의 교회에서 “민중의 해방교회”로 탈바꿈하는 길은 역시 바닥교회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 바닥 민중교회의 바탕은 곧 예수의 민중 메시아 왕국이요, 예수가 축복한 가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바닥교회는 속칭 말하는 “인민의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을 속박에서 해방하는 “인민의 힘”입니다.

로메로 주교의 순교는 개인적인 순교가 아닌 입이 있어도 말 못 하며 이름 없이 죽어가는 민중의 순교를 대변합니다. 그의 고난과 죽음 속에 민중의 아픔이 바깥세상에 환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을 기독교적인 의미의 순교자라는 표칭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들의 참 거짓을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브리노가 말한 대로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로마의 처형대”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제국이 반동 노예 세력들에게 위협을 주고 뿌리 뽑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치적 십자가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노예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의 형상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7~11)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 자유를 갈구하는 수많은 무명의 민중과의 연대성 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속엔 그러므로 억압당하고 노예화된 민중의 순교가 담겨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여기 바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의 해방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소! 우린 그분과 함께 있었소. 그분은 지금 우리

와 함께 계시오”라고.

Ⅲ. 오늘날의 순교에 관한 신학적 해석

위에 있는 세 순교자의 실례를 보면서 순교의 유형들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국가 권력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역시 고전적 의미에서의 순교,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 순교한 경우를 슈나이더 목사의 순교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본회퍼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정치적 윤리 행위”로 순교한 표본이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적극적인 저항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카나리스 제독과 오스터 대령도 함께 처형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도 기독교 순교자의 반열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종교적인 구체적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 여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님께 귀속하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다 죽었다는 점에서 본회퍼와 똑같은 순교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의 순교가 개방적인 신학적 바탕에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싸웠고 싸우다가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까지만 “기독교적”이란 딱지를 붙이고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순종한다고 할 때 거기서 생겨나는 순교의 범위를 기독교적인 한정된 틀을 넘어서는 “보다 넓은 공동체로까지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교한 사람은 비록 기독교인들이 함께 증언자로서의 순교를 당할 때 이미 교회의 진리와 정의를 위한 증언행위가 교회란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작용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란 사람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치”란 표현이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 당한 게 아님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교회를 등에 업고 순교하려던 영웅들은 아니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교자들이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갈구한 그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자들이라는 말이다.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공헌한 사람들이다.”라고.

로메로 주교의 경우 실제로 그리스도를 증언함을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다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서 가난하고 눌리고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서도 죽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력투쟁이 벌어지면 가장 많은 고난을 겪는 자들은 역시 약자들입니다. 희생당하는 자들은 눌린 자들이고, 제일 먼저 죽어가는 것은 역시 어린이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새

창조의 광명이 비쳐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사 9:1).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을 등지고 불의에 빠진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놀리고, 죽어가는 민중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전파할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냉가슴 앓듯, 이름 없이 집단으로 죽어가는 순교자들 속에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 표징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들 민중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이들처럼 로마제국의 노예처럼 형틀에 못 박혀 죽은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며 죽었고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먼저 안겨줄 것입니다. 이들 핍박받는 민중 편에 선 교회는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은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소자들, 어린이들을 형제요 이웃이라 부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가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순교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란 점에서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한 것은 사실이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묵시론적 측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덮인 종말적인 고난을 사랑과 믿음의 증거로 미리 스스로 맛보았다는 의미의 순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은 “세계가 종말적으로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종말적인 고난을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극복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오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곧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이런 종말의 때를 미리 맛보고 따라서 오고 있는 진리의 증인으로 현재의 거짓과 싸우고, 오고 있는 정의의 증인으로 현재의 불의와 싸우다가 순교 당한 “묵시론적인 증인들”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롬 8:18)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지금 현세의 고난이 바로 장차 올 종말의 고난을 미리 영광을 바라보며 묵시적으로 선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때의 고난을 견뎌진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없고 약한 자들이 제일 먼저 이 고난을 견뎌집니다. 그들이 첫 희생자가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인디오족이 제일 먼저 죽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죽어 갑니다. 그리고 불쌍한 아낙네들이 빈민촌의 실업자들이 차례로 죽어가고, 숲과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결국엔 부자와 힘센 자들도 죽어갑니다.

대규모의 “묵시론적 죽음”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제와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만든 “불의의 체제”로 인해서 연평균 3백만의 인구가-그중에서도 제일 먼저 어린이들-죽어 갑니다. 사람이 만든 “착취의 체제”로 인해서 자연이 파

떨되고 폐허와 사막이 늘어가고, 숲이 죽어가고 물이 오염되어 갑니다. 군사적인 “안보체제”란 결국 불안과 불신의 정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공포가 너무도 무지막지해 초대강국들조차 스스로 함정에 빠져 구출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대의 “암흑기”에 처해서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나고 “목시론적 증인”들의 수가 늘어만 갑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원고 측 증인이 될 사람들이고 동시에 죽음에서 삶으로의 방향전환을 위해 변호할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하면 최후심판 때에 증언자로 등장할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로, 주님께서는 이들을 “인자”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가장 작은 소자”라 했습니다(마태 25).

IV. 순교와 화해의 정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은 거짓이 판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증오와 적대관계가 팽배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화해역사를 몸소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충실히 증언하는 일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복음 증거와 화해의 정치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정치란 언제 어디서나 화해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화해를 통해서만 복수의 악순환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만 보복 조치의 악순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를 통해서만 “적대관계”가 극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그리고 앞서간 순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화해이며, 그것은 상대방의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부당한 방법이 아닌 정의에 입각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 오늘날 세계의 분단고정화 현상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사고와 감정 깊이에게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적을 만들어 증오를 일삼는 배경에는 자기 자신의 “불안”한 때문입니다. 증오를 외치는 자는 따라서 불안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가 오늘 동서 분단 사상의 근저입니다. 국가의 적과 싸우기 위해 국민이 총화를 이루어야 하고, 다른 계층을 이적으로 돌려 자기들만의 계층의 안보를 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친구 아니면 적, 따라서 인간을 증오하도록 세뇌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반공” 역시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증오의 세뇌 교육을 일삼는 사상입니다.

두 사상이 불안 및 적개심 조성을 위해 국민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습니다. 두 사상의 싸움에 원자무기까지 동원되고 있으니 세계는 바야흐로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들 사상을 목시적 냉소주의요 실천적 무신론이라 부를 수 있겠습

니다. 전쟁을 도발할 때마다 친구 아니면 원수라는 등식을 적용합니다. 교묘하게 원수를 만들어 불안을 조성시키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합니다. 심리전이라는 것 역시 인간의 생명을 업신여기는 상징입니다.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테러주의자”로,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로 “제국주의자”로 비하해 상대방을 서로 말살시켜 버리려 합니다. 원자 시대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천만 수억의 “대량학살”이 자행될 것은 뻔하며,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정치란 언제 어디서나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그 바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마태 5 : 43~48).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정치적 영역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그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산주의자들을 원수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화해 하셨다고 할 때 이 “세계” 속엔 공산주의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원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이라 할 때 그들을 공산주의자로 보지도 않으시며 이웃 속에 공산주의자를 포함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머리를 꿇고 적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겐 “자유”의 특권을 전제로 주십니다. 원수를 원수시 하는 불안을 극복하는 지혜와 적대감을 쓸모없는 감정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창조적 지혜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한테 행동원칙을 지시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에 의한 주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구약성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시오,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시오”(잠언 25:21)라고. “태양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비취며 생명을 부여한다”(마태 5:45)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양의 자녀처럼 친구와 적을 섬기는 종이 될 때 서로 간의 적대관계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2) 소위 “국가안보정치”란 구호 아래 여러 국가에서 헌법을 무효로 하고 인권은 짓밟는 사례가 벌어집니다. 만사를 “안보”라는 구실 하에 정당화합니다. 정적들을 안보라는 구실로 체포·고문 또는 처단해 버립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비 확장을 꾀해야 한다며 희생이 강요되고 자유와 정의가 안보란 핑계로 제한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치는 국가안보가 지니지 못하는 내적으로는 “민족의 화해”를 밖으로는 국제간의 긴장 완화, 민족통일을 지향합니다. “민족의 화해”란 달리 갈등을 거쳐 진정한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대관계의 해소가 없는 한 민족의 화해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가 소생되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국가 내의 적대관계가 해소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민족

의 화해”는 강한 자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권력이 사회 각계각층에 정의롭게 분배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런 방향에서 정치적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민족화해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하는 관점을 보면서 민족의 화해를 취한다고 할 때 분명히 생각을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원자무기의 세계파멸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국가적인 외교정책”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할 수 없고 다만 공동의 “세계 국내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가에 대항하여 도무지 우리 자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갈지 묻지 말고, 이제는 다른 국가와 함께 어떻게 공동으로 우리 안보를 지켜갈까를 물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대결정책” 대신에 국가·민족 공동의 평화를 위한 “공동책임 정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이 모두 공동의 안보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오늘 군사적 대결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상황에서 더욱 타당한 말이라 봅니다. 원자의 대량살육위협이 그대로 있는 현실에서 화해의 정치야말로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진실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부헨발트 수용소의 “화해의 설교자” 슈나이더, 폭력정치가 고조되던 히틀러 치하의 “정치적 화해의 증언자” 본회퍼, “민중의 화해자”인 로메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보냄 받은 자들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이치를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분을 대신하여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해 하십시오(고린도후서 5:19).

출처: 위르겐 몰트만, 「순교자의 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회보, 1984년 12월